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09. 5

통권 155

한인뉴스 이메일 주소가
haninnews123@gmail.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No. 1

LCD 모니터



세탁기



에어컨

홈시어터



LG전자, GfK No.1 브랜드 영예

2008년 4개부문 수상으로 3년 연속 최다부문 No.1

2008년 최고브랜드 선정은 소비자성향과 친환경 이미지 반영 상품개발과 전국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공헌 등 통한 이미지 고양 결과

이기주 LGEIN 법인장

” LG전자 국민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공격적 내수시장 공략으로 전년대비 올 인니 전자제품 내수시장 30% 증가 전망 ”



GfK 어워드는 세계적인 소매시장 조사기관 GfK가 한 해의 판매성과를 국가별, 제품 카테고리별로 평가하여 해당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어워드 이다

| | | | |
|--------------------|-------------------|-----------------|----------------|
| CIC 365빌 | LG 고객 정보 센터, 365일 | | |
| | 자카르타 | (021) 727-99777 | 0-800-123-7777 |
| | 수라바야 | (031) 549-0777 | 수신자부담 |
| Visit Website | | id.lge.com | |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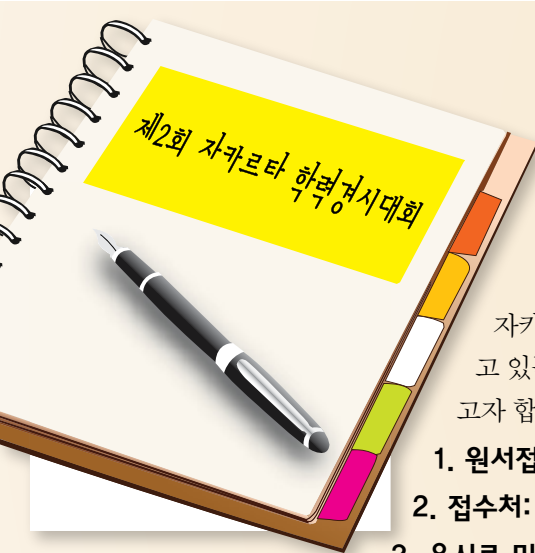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PT. DONG JUNG INDONESIA
ISO 9001 : 2000 ISO 14001 : 2000



제2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2회 자카르타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2009년 5월 1일(금) ~ 5월 20일(수)

2. **접수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과목당 30만 Rp,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 시험일 | | 시간 | 비고 |
|---------|----|--------------------|--------------------------------------|
| 5.23(토) | 국어 | 08:30~10:00 (90분) |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전 입실 |
| | 논술 | 10:40~12:40 (120분) | |
| 5.24(일) | 수학 | 08:30~10:30 (120분) | |
| | 영어 | 11:10~12:10 (60분) | |

5. 응시 자격

- 고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 국내·외 대학 진학희망자
 - 한국 학교 및 외국계 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재외국민)

6. 수상자 발표일

: 2009년 6월 12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7. 시상 내역

| 상명 | 인원 | 시상내역 |
|------|--------|---------|
| 대상 | 과목별 1명 | 상장 및 부상 |
| 최우수상 | 과목별 2명 | " |
| 우수상 | 과목별 3명 | " |
| 장려상 | 과목별 5명 | " |

8. 응시자 시상 및 특전

본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로 수상실적은 대학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수상경력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자료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수학 특기적 재능 보유 증빙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 사항

- 시험표는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문의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TEL 844-4958) 및 고등부 교무실(TEL 845-04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주 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후 원 : 재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KOTRA, KOICA, 재인니한인회, 재인니부인회, LG전자, 삼성전자,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대한항공, CJ, 코린도 그룹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PRIMARY - SECONDARY - JUNIOR COLLEGE - GAC - DIPLOMA KAPLAN SINGAPORE

WORLD-CLASS INSTITUTION, QUALITY EDUCATION



LEE SUNG HYUN

JOONG JIN KWAK

SHAL ROM KIM

KIM KYO HYUN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Lee Sung Hyun accepted by Korea University
- Joong Jin Kwak accepted by Hong Ik University-Korea
- Shal Rom Kim accepted by Jang Sin University-Korea
- Kim Kyo Hyun accepted by Mac Quarie University-Australia

Jl. Gedung Hijau Raya I No.1
Pondok Indah, Jakarta 12310
Indonesia
Tel: 62 21 7590 3342
Fax: 62 21 7590 3414
admission@raffles-international.org
www.raffles-international.org

Partner Schools:



Authorized Center of:



Partners in Learning: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문화회관'에서 우리사회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바라며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원가입 및 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021-521-25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지정 가맹점 안내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 호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이용 가능 카드 | 할인액 | 기타 |
|---------|---|-------------|--------------------|-----|---------------------------------|
| 한 국 관 |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 720-7322 | ANZ | 15% | |
| 가나 레스토랑 |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 571-0909 | 모든카드 | 10% |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금액 무제한) |
| 아랑갈비 |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 8983-5988~9 | 모든카드 | 10% |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
| 씨티서울 |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 5289-7506 | 모든카드 | 10% | |
| 한 성 관 |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 453-3033 | VISA, MAS-TER, BCA | 10% | |
| 한 우 리 |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 8459-2871 | VISA, MAS-TER | 10% | |
| 장터 레스토랑 |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 4585-4302 | | 10% | |
| 뉴서울 슈퍼 |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 723-6238 | VISA, MAS-TER, BCA | 5% | |



이 번 호

알립니다

한인뉴스 이메일 주소가
haninnews123@gmail.com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 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송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김남규, 최양기, 정무승,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aninnews123@gmail.com
http://www.innekorean.or.id

26



23



35



47



62

10 한인사회 소식

- 한발 더 도약하는 한인회 청년사업부
- 한인사회, 시뚜긴똥 댐 이재민에 구호품 전달
- 전남 도지사, 교민업체와 오찬간담회 개최
- 한인회, 김창모 대한항공 지점장에 감사패 전달
-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 안내
- 한국거래소,한인상공회의소, 한국증시시장 상장 설명회 개최
- Kotra, 교민기업 경영지원세미나 개최
- LG전자 인니법인, 2008 GiK 넘버원 브랜드 어워드 수상
- 이경화 前편집위원 별세
- 한국 부인회, 올 하반기 It's Korea 2호 발간
- 반동한글학교 송태홍 교감, 국무총리상 수상
- 2009년 반동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안내
- 반동 부인회 발족

21 이달의 사진 보금자리

22 한국말로 말해요 사랑과 행복

23 묵향과 더불어 청락(淸樂)을 꿈꾸며

24 건강칼럼 더위를 녹이는 향긋한 달콤함, 멜론

26 인터뷰 이사람 한인사회 元老 오세운

31 출국세 관련 사항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2 인니문화탐방 블랙다이아몬드

35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가족미란?

37 이달의 詩 옆집 할머니

38 돼지독감 Q&A

39 한-ASEAN CEO Summit 참가안내

40 유춘강의 긍정칼럼 레이프 가렛과 수주의 사이는 너무 멀어

42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43 우리짱 니콜라스의 체험영어-12 GET동사는 영어의 50%

47 법률상식 중재(분쟁해결 제도 (2))

51 드라마에서 피올린 바하사~

55 루피아자카르타 증시 강세

56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안전관리 제고(提高) 방안

61 MOVIES

62 김은미 편집위원 *추천 도서* - 진화하는 결혼

63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5

66 BOOKS

68 경제 리포트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5월 공지사항



한발 더 도약하는 한인회 청년사업부

지난해 1월 발족 후 현재 약 3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인회 청년사업부’(회장 이진수)가 활발한 모임으로 2009년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2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 2009년도 사업 계획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장(場)으로서 청년사업부다운 열기를 보였다.

이어 지난 4월 4일엔 ‘인도네시아 청년회(KNPI)’와 동반으로 금년도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친목도모 골프대회, ‘한-인니 청년사업부’ 간담회를 열어 한-인니간 청년사업부간의 적극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인도네시아 청년회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회원이 한인회청년부와 회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김호영 대사, 김현기 홍보관, 박헌식 부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 한인회 청년사업부가 인니 청년회와의 기교 역할이 되어 상호 우수문화교류 및 해외 청년회 활동을 위해 힘을 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진수 회장은 금년도 5월, 인니 체육성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한인사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인회 청년사업부는 2008년 1월 발족하여 현재 약 35명의 회원에 이르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도네시아 청년 사업부와의 돈독한 교류를 통해 문화, 체육, 교육, 홍보 및 봉사 활

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청년 사업부의 상호 발전과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인회 청년사업부 문의 및 안내.

간사 : 한 규성(Hp.0818-890571)

원 영태(Hp.0815-19020200)





땅그랑 시장(가운데)에게 구호품 전달 후 기념사진.
(우측 두번째 - 김재민 사무국장, 좌측 두번째 - 김성복 한인회 교민담당)

한인사회, 시뚜긴똥 댐 이재민에 구호품 전달

지난달 17일 반뎨주 땅그랑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뚜긴똥 댐 붕괴로 100여명의 사망 및 실종자, 60여 중상자가 속출했고 현재까지 300여 가구 1400여명의 이재민이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

한인회와 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 4월 13일과 7일 각각 이재민 구호센터(POSKO)를 방문해 조금이나마 아픔을 함께 나눴다. 한인회는 구호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간이 천막에서 새로운 등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민들의 요구에 맞게 적합한 저녁시간을 가족이 함께 할수 있도록 텔레비전 5대와 분유를 Ir.H.M. Shaleh, MT 땅그랑 시장에게 직접 구호물품으로 기증했고 농어촌공사 또한 생수와 라면 등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며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댐이 하루 빨리 복구되고 이재민들을 위한 새로운 거주지가 완공될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땅그랑 시장은 방문한 한인회와 농어촌 공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현재 각계 각층의 구호손길로 현재 이재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료품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으며 현재 현지 개인 기업인의 기부로 이재민들이 새로이 거주하게 될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은 새로운 부지 확보와 거주지 건설에 한인기업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30여 동의 간이천막과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호센터 주변의 이재민거주 지역엔 하루 아침에 배움터를 잃게 된 어린학생들을 위한 대학생들의 자원교육 봉사가 한창이었다.





전남 도지사, 교민업체와 오찬간담회 개최

- 술라웨시주와 협약 통한 해조류·옥수수·팜·산림조림지 등 115ha 확보 성과 전달
- 전남도 - 교민 간 자원 확보 협력 방안 논의

지난 4월 11일부터 사흘간 해외 자원기지 확보를 위해 술라웨시를 방문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5일 자카르타에서 한인회 및 자원에너지 관련 교민업체 대표 2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박준영 도지사는 오찬에서 “금번 술라웨시 방문 중 술라웨시 주 정부와 우호교류합의서 및 자원개발 양해각서 체결하고 (체결분야 1.우뭇가사리 생산 등 바이오에탄올 원료생산 2.옥수수, 카사바, 팜 등 생산농장 경영 3.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한 조림사업 4.광물 자원 개발사업 5.기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술라웨시 주정부로부터 전라남도 면적에 맞먹는 115만ha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됐다”고 전하고 전국지자체 중 해외 자원기지를 처음 확보하게 된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술라웨시 지역의 여러분야 투자 여건을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본국내 전남도가 타지역보다 10% 높은 일조량과 해안가의 풍력발전,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발전, 섬간 조류 이용한 조류발전과 조림 등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최적합지역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재외동포들의 활동이 큰 힘이 됐었다고 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대사로서 항상 현지 주민들과 조화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교민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리한 교민업체 대표들은 박 도지사에게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관련된 자세한 현황들과 노하우들을 전해주며 교민기업들과의 지속적 협력 방안 논의가 이어지길 바랐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장으로서의 4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김창모 지점장이 귀국한다. 한인회는 지난 4월 14일 승은호 한인회 회장을 비롯 회장단들이 모인 송별식 가운데 김창모 지점장에게 인도네시아 임기 중 한인회 이사 및 상공회의소 임원으로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니간 경제, 문화발전과 교류에 많은 공헌을 한데에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창모 지점장은 처음 인도네시아로 발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10년은 더 살고 싶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라며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게 해준 한인회와 교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인회, 김창모 대한항공 지점장에 감사패 전달

한인회 회장단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인니 교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바랐다.

한편 이날 송별식에는 후임 지점장인 최재경 지점장이 동참하여 한인회 회장단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귀국하는 김창모 대한항공 지점장(오른쪽)과 새로 지점장을 맡게 될 최재경 신임 지점장(왼쪽)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

(2009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기간: 2009년 6월 23일(화) ~ 26일(금), 3박 4일간

장소: 셰라톤 워커히 호텔(서울) 및 청풍리조트(충북 제천)
※ 서울 - 2박3일, 지방 - 1박2일

슬로건: 글로벌 한인, 선진 코리아

주최: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통상부

참가규모: 60개국, 약 450여명 (전 세계 한인회 회장 및 국내 초청인사)

대회의장: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영수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한국거래소·한인상공회의소, 한국증시시장 상장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와 인니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승은호)는 지난 4월 20일 자카르타 퍼시픽 플레이스 볼룸에서 인니 우량 교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증시시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우증권, 이트레이딩, 우리투자증권, 우리코린도증권의 후원으로 개최된 상장 설명회에는 교민대표기업인 코린도, KMK 글로벌 스포츠, 두산, 보성, 잠비 리소스, Good Guys, Kaho Indah, 노블랜드 등 30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증시 시장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우량기업이 한국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수단을 공급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증시 시장에 관한 절차, 상장요건, 기업 상장 주관회사의 역할, 타 외국 교민기업의 상장사례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이광수 한국거래소 본부장은 한국거래소를 소개

하면서 풍부한 유동성 및 투자자 기반(높은 외국인 투자, 경쟁거래소 대비 최고 환금성 보유), 저렴한 상장유지비용, 홍보 및 사업확장 기회(각종 미디어 통한 간접홍보효과, 아시아 시장 진출관문,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상장기업군 보유)등을 한국거래소 상장 이점으로 제시했다.

상장 대표주관회사로 참석한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은 상장일정과 상장 시 단계별 역할업무, 대표주관회사 선정 시 유의사항, IR(Investor Relation), 공모가격 결정, 상장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자리한 교민기업대표들의 상장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까지 외국기업 상장을 위해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미국 등지에서 현지 상장설명회 개최 및 개별 기업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장유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외국기업 5개사가 한국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 거래되고 있으며 20여 개사가 상장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Kotra, 교민기업 경영지원세미나 개최

- 인니 정부, 완구·신발·가전·의류·식료품 수입규제 강화 -

코트라(KOTRA) 자카르타 무역관(센터장 김병권)은 1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100여개 한국기업 대표를 초청해 ‘경영지원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통관 및 국가표준(SNI)제도 강화, 국산품 장려운동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대규모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탓에 통관 및 인도네시아공업규격(SNI)제도 강화, 국산품 장려운동 등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고 있다”며 교민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세미나에선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과 ‘직원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강연도 마련됐다.

코트라의 복덕규 차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완구, 신발, 가전,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특별수입규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위해 등록수입업자(IT) 추가등록,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

입제한, 선적전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시장가격을 주로 참고해 수입가격을 재산정하고 수입자 제시가격과 세관 산정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한 조정관세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복 차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인증 품목에 열연재와 갈바륨 강판 등 2개를 추가한데 이어 정부 및 관련기관의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 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방치영 부장은 강연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현실을 감안해 가급적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각 업체에 적합한 채용과 퇴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신성철(스피드뉴스 대표/연합뉴스통신원)>



LG전자 인니법인, 2008 GfK 넘버원 브랜드 어워드 수상

- LGEIN 글로벌 경제침체 불구 올해 내수시장 30% 증대 전망



LG 인니법인(LGEIN)이 2008년에도 명실공히 인도네시아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아 '2008 GfK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 어워드(이하 GfK 어워드)'를 수상했다.

GfK 어워드는 세계적인 소매시장 조사기관 GfK가 한해의 판매성과를 국가별, 제품 카테고리별로 평가하여 해당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하는 어워드며, LGEIN은 총 12개 분야 중 LCD 모니터, 세탁기, 에어컨, 홈시어터 등 4개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금년도 수상으로 3년 연속 최다 GfK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거주 LGEIN 법인장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이지만 GfK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 4개부문 수상의 여세를 몰아 올 인니 전자제품 총 내수시장 21조 루피아 중 23%에 이르는 5조 루피아(전년대비 내수 매출 30% 증가) 매출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니 정부가 올 전자제품 시장이 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로 볼 수 있다.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내수 매출 전망은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 총 매출의 75%에 이르는 유럽, 미국, 아시

아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인니 내수시장 집중공략으로 상쇄시킨다는 전략이다. 스티어완 판매이사는 저가형 제품을 줄이고 프리미엄 고객 대상 고가형 제품으로 매출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LGEIN은 LCD 모니터와 LCD TV 생산라인에 각각 1500만 달러와 9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거주 법인장은 향후 CRT 모니터 수

요 감소와 LCD 모니터 수요량 증가를 예상되는바 기존 모니터 생산라인에 5개의 신모델 LCD 모니터 생산을 위한 설비확충을 위해 1500만 달러와 LCD TV 생산에 900만 달



러를 투자하여 인니 내수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TV 방식과 같은 호주와 타 아시아국가 등에도 수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화 前편집위원 별세

이경화 한인뉴스 前편집위원이
지난 4월 22일 새벽 심장질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인뉴스

한국 부인회, 올 하반기 It's Korea 2호 발간

저희 재 인니 한국부인회에서는 2007년 9월에 약 6개월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 및 교민사업체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슈퍼마켓, 미용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체를 알리고자 정보 책자 “It's Korea (196페이지 / 5,000부 / 영어판)”를 발간하여 우리 한국 기업체의 직접적인 고객이 될 현지인 및 외국인들에게 배포하여 당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9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준우승,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싱글 우승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세계 속의 한국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2009년에도 It's Korea 2호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행할 It's Korea 2호에서는 지난 1호 발행 시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문화



축제와 한국 내에서의 문화행사와 축제 소개도 함께 실고자 하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한국교민을 뛰어넘는 현지인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여러 교민들의 사업 번창에 일조를 하게 되고, 작으나마 우리의 이웃인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에 한국 기업체 및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t's Korea 2호

발간 부수 : 5,000부 / 약 190페이지 / 원색

재인니 한국 부인회 회장 홍미숙



국무총리상을 수상받은 송태홍 교감(좌측 세번째)

반동한글학교 송태홍 교감, 국무총리상 수상

반동에서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반동한글학교(교장 엄정호/반동한인회 회장) 송태홍 교감이 국민교육향상을 위해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공헌으로 한승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표창장은 지난 4월 21일 한국대사관에서 반동한인회 엄정호 회장과 변철환 영사,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호영 대사가 직접 송태홍 교감에게 전달했다.

반동으로 이주한지 2년 정도가 지난 2003년부터 열정으로 자녀 교육에 몸담아 온 송태홍 교감의 교육 계기는 남달랐다. 반동에서 뜻 밖의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게 된 송태홍 교감이 잠시 방황을 하고 있을 당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시간을 가져보는게 좋겠다는 주변 교민들의 권유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잃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서일까 송태홍 교감의 교민자녀 한글교육의 열정에 주변교민들은 안도와 함께 고마움으로 변했다.

현재 반동한글학교는 한 교민 선교관으로 이전, 일

곱 분의 교사들과 함께 교민자녀들 약 50여명을 위한 한글교육에 힘쓰고 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한글학교는 유치부, 초등반, 중·고등반으로 나뉘어 있



으며 각각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말을 많이 해야하는 교사들의 반복교육으로 인해 두어 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배고픔을 느껴 식사가 준비되지 않으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불평 아닌 불평이 있을 정도로 교사들의 의욕도 대단하다. 특히 중·고등반은 반동공과대학(ITB) 교환교수인 최정욱 교수가 논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일반 교민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카르타를 제외한 다른 교민사회처럼 반동엔 아직 한국학교가 없어 모든 자녀들이 네루국제학교, 반동



2009년 반등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장소: 반등인다골프(KOPO SULAIMAN GOLF CLUB)

날짜: 2009년 5월 20일 수요일

시간: 오후 12시 Tee Up

입장권 판매가격: 400,000루피(캐디피 별도)

입장권예매처: 반등한인회 사무실, 한국관 레스토랑,
명가 레스토랑, 소나무 레스토랑

담당자: 조정화 081-222-36377

강석희 081-320-247878

박영희 081-121-0054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제로 실시합니다. 다양한 시
상 및 행운권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민여러분
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반등한인회 -



국제학교, 영국국제학교 등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점에서 송태홍 교감은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자녀 영어교육과 비교해 한글교육의 당위성을 전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는 부모님들의 의욕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끔 가정에서까지 자녀들에게 영어로 이야기 하라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한국어를 통한 풍부한 표현력이 선행되어야 영어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글학교 반등한인회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로 부터 교재를 지원받고 있는 중이다.

송태홍 교감은 한편 반등한인회 여성부(회장 박영희 사장) 총무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반등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반등 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박영희 여성부 회장의 사명감에 보조를 맞춰 매월 1회 여성부 등산모임에서 회원들과 국립공원 내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머리도 손수 깎아 주고 있다. 송태홍 교감은 교민 자녀 교육과 인도네시아 사랑이라는 진실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송태홍 교감 :

전화: 0813-2222-4787,

이메일: hong3553@yahoo.co.kr



반동 부인회 발족

부인회가 2008년 1월 1일부로 발족되었습니다.

1, 2, 3대 한인회에서는 없었던 조직이었는데 4대에 들어 비로소 여성부의 독립된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인회가 출범하면서 내건 목표는 <우리끼리의 결속>이었습니다. 여성으로써 낯선 이국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언어습득, 자녀교육 문제, 문화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해소 등등--우선은 부인회 member들의 결속을 다지는 일이 첫 번째 일일 것이라 생각하여 한두 개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 <수요등산모임>이 있습니다.

왕복 2시간여의 알맞은 산책코스지요. 한 달에 4~5번의 모임 중 한번은 등산로 청소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어디를 가나 쓰레기가 많지요. 쓰레기 정서에 관한 한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선진국입니다. 몇몇 어머니들의 건의로 우리가 다니는 등산로는 우리 손으로 말끔하게 치우기로 하였습니다. 시작은 소박하였습니 다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인니의 자연

정화에 한 귀퉁이쯤은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애아 고아원 방문>을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게 된 고아원이었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한인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도 어머니 회원 중에 미용 기술을 가진 분이 계셔서 때때로 원생들의 두발정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기형인 아동도 있는 것 같아 한국의료진의 인니파견 수술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고아원 방문을 진행하면서 우리 부인회는 `도움을 준다, 시혜를 베푼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 9월 정도부터 시작될 <인니어 노래교실>에 부인회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흥이 좋은 인니인의 특성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가락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고나 할까. 노랫말을 통해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고 노랫가락을 읊조리면서 인니사회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초대 반동 부인회의 활동은 이 정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대 부인회로 넘어가면 속제는 좀더 알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건강친목 결속을 `교양증진`으로, `우리끼리의 모임`을 `인니사회와 함께 하는 우





리`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증진>의 문제

급진하는 고국의 선진 문화를 우리들은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적조한 고국방문으로 그 골은 더 깊어갈 것이고 더 배고파 할 것입니다.

오래가는 이민생활이 윤택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도를 찾아 보아야 되겠지요. 외부강사 초빙의 강연이나 내부인력을 동원한 세미나 등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겠습니다.

<인민사회와 함께 하는 우리>

최근 몇년 사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좀더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적인 접근, 사회활동참여 등으로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이곳에 적극적인 다가감이 지금이야말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 이제 겨우 한 발짝 떼어 놓은 <반둥 한국 부인회>, 차기, 차차기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반둥 초대 부인회장 박영희



제목 : 보금자리 / 사진 : 김 영숙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인뉴스 표지 공모를 보시고 김영숙 교민께서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따금씩 ‘출사’에 동참하시는 정도라고 하는 김영숙씨가 보내오신 이 사진에 작가다운 노고가 배어나옵니다. 다만 사진의 크기가 적절치 않아 작은 지면에 실어봤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의미하는 ‘보금자리’를 형상화 한 백로의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솜털 보송보송한 아기 백로의 모습에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모습이 더없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옛 성현들이 누누히 이야기 했던가요.

한 해의 꿈을 심는 계절인 봄의 한 중간에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추억을 남겨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의미에 선생님들의 존재도 살짝 넣어봤으면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묘한 뉘앙스도 기억하시면서요....

쭈빫 케이크



인도네시아에는 민족이 아주 많아서 문화도 많고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 달콤한 음식도 있고 매운 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보통 튀김 음식과 고소한 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양한 케이크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전통 케이크 중에서 쭈빫 케이크가 제일 유명한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는 맛이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밀가루와 우유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쭈빫 케이크는 지금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케이크가 초등학교의 과자이어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쭈빫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은 별로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계란 (4개), 설탕 (150그램), 우유, 밀가루 (300그램), 녹은 마아가린 (50그램), 파닐리 (1/4 작은 술) 그리고 물 (100ml). 먼저 계란과 설탕을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유와 밀가루는 그 가루 반죽에 넣고 섞습니다. 그리고 녹은 마아가린, 파닐리와 물을 넣고 모두 잘 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루 반죽을 과자 모형에 넣습니다. 쭈빫 케이크 모형은 철로 만든 모형입니다. 모형이 불 위에 있는 동안 가루 반죽위에 초콜릿이나 치즈를 놓으면 더 맛있겠습니다. 10분 후에 쭈빫 케이크가 노랗게 되면 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설익은 쭈빫 케이크가 더 맛있었습니다. 케이크의 가루 반죽 밑에 익지만 가루 반죽위에 아직 익지 않아서 뜨겁게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쭈빫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꼬집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크가 익었을 때 꺼내기 위해 꼬집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아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2학년



청락(淸樂)을 꿈꾸며

화현 강희중

1993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생활, 언제쯤부터였을까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 생겨났다. 사업성공을 위해 몸담은 회사에 열정을 바쳤으며, 그로 인해 얻은 성과 또한 없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만은 아니었다. “선수관리(先手管理)!” 즉 나의 좌우명이 5년, 10년 또는 그 이후를 생각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꾸리고 싶은 소망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였다.

란과 분재, 수석에 집중하게 된 것은 한국에 있을 때 쌓은 약간의 지식이 도움이 되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수석, 분재협회 회원으로 중앙이나 지방 전시회에 참여하며 많은 현지인 지사들과 교분을 나누는 절대적인 매개이다. 또한 색소폰 동호회 활동은 지인과 교민들과 더불어 즐기는 청량제 같은 요소다.

한인뉴스는 <묵향과 더불어>란을 새로 꾸렸다. 아마추어들이라고 말하지만 서화에 쏟는 정성과 실력이 프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교민 서예가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작품과, 그들의 잔잔한 이야기로 함께 문화의 향기를 같이 나누고자 한다.

- 한인뉴스 -

내가 문인화에 입문한 것은 학창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취미가 나이에 어울리게 멋지게 필묵으로 진보된 셈이다. 수많은 색을 품고 있는 먹색, 그 짙고 얽음의 단계가 얼마일까? 더듬어 볼 때가 많다. 아직 일필휘지가 서툴지만 묵향과 묵색의 신비에 폭 빠져드는데 그 격조가 이미 욕심을 저 만큼 앞에 둔 나이를 가늠해볼 때 이만큼 어울리는 취미생활도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취미생활과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삶이 윤택해진다고 했다. 하여 옛 다인(茶人)들은 다도와 수석, 거문고, 란, 고서와 고서화 등이 여섯 가지를 청락(淸樂)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한다. 나 또한 차와 수석, 란을 벗하고, 거문고는 아닐지라도 색소폰으로 삶의 한 가락을 풀어내며 다시 틈을 내어 필묵 운용을 즐기고 있으니, 가히 옛 선인들의 청락 언저리라도 맴도는 셈이 아닐까 싶어 스스로 감사의 미소를 짓기도 한다.

필묵을 벗하게 된 뒤 인재 손인식 선생님과 인연으로 자필묵연전에 4회 출품을 했고, <서울서예대전>, <현대서예문인화대전> 등에 사군자(四君子)를 출품하여 입상을 하기도 했다. 올해는 특별히 대나무에 집중을 하고 있다. 사군자는 특별히 묵색의 변화와 다양한 감정을 지닌 선의 질감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만물의 내적 본질과 외적 형상을 함축하여 잘 드러내야 한다고 배웠다. 나는 그 높은 경계를 아직 다 채득하지 못했고 표현 능력 또한 부족하기 그지없다. 다만 이 지면을 빌어 여가에 휘호한 한 점의 작품을 실음에 있어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바랄 뿐이다.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위를 녹이는 향긋한 달콤함 ‘멜론’

건기가 시작되고 한창 더위가 무르익는 즈음입니다. 뜨거운 날씨 덕에 더위 먹는 분들도 많아지고 더워서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면 투정 아닌 투정 부리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과일 멜론을 소개할까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봤을 법한 멜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멜론은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지만 비싸서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먹기 힘든 열대 과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재배되면서 구매가 쉬워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먹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멜론이라고 하면 예전에 먹어 본거랑은 다르게 단맛도 덜하고 어떤 분들은 무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맛이 참 외랑 비슷해서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멜론에는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 맛과 향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만 고르면 아주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기에 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멜론의 학명은 *Cucumis melo* L. 입니다.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 쌍떡잎식물강 박목 박과 참외속에 속하였습니다. 같은 박과의 과일인 수박, 참외의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 맛과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멜론의 원산지는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인도로 추정되며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어 지고 있습니다.

멜론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수박보다는 좀 작으며 둥근 원형,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걸 표면이 밋밋한 메론 부터해서 그물같이 하얀 줄로 엉켜있는 네트 멜론이 있습니다. 특히 멜론 중에서도 껍질이 그물 모양인 머스크멜론이 당도가 높아 후식용, 주스용으로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누르면 살짝 들어가지만 딱딱한 편입니다. 칼로 자르면

겉은 딱딱하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부드럽고 연한 과육이 있으며, 에메랄드 빛깔에서 노란색으로 점차 변하며 색깔 역시 달콤합니다. 어떤 멜론은 겉은 노르스름한 껍질로 되어 있으며, 자르면 그 과육은 주황빛깔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는 하얀 씨가 가운데 몰려 있으며 과즙도 풍부하고 과육 또한 아삭함 동시에 부드러움을 가졌습니다.

특히 멜론의 껍질에는 거미줄처럼 하얀 그물모양의 줄무늬가 그어져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무늬는 고급스런 벽지 같기도 하지만 그 줄무늬 안에는 나뭇비밀이 있습니다. 여자 분들이 임신하거나 갑자기 살이 찌면 배나 다리에 하얀 줄이 생기며 트면서 갈라지는 것처럼 멜론 역시 크면서 갈라진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것입니다. 과일이 굵어지면서 껍질이 갈라져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낸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멜론을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은 한량하고 미는 감하며,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 족태음 비경, 족양명위경, 족소음신경이 됩니다. 멜론 특유의 한성으로 인해 더위로 인해 생긴 열을 풀어주며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주며, 갈증을 없애거나 번열을 제거하고 기를 잘 소통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진해(鎭該:기침을 그치게 함), 거담(祛痰:가래를 없앴), 운하(潤下:쉽게 배변하게 함) 등의 효과가 있어 변비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멜론은 박과의 식물로 그 종류를 살펴보면 예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 드린 바가 있듯이 박에서부터 수박, 참외, 오이, 열대과일로서는 부아 블레와등 이 모두 박과의 과일입니다. 박과의 식물은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소염성 이노, 배농, 진해거담작용이 있는 동과자(冬瓜子), 간염에 걸렸을 때 유용하며 토제로 쓰이는 참외꼭지 과체(瓜蒂), 이노제로 쓰고 급성과 만성 신장염에 쓰는 수과(水瓜), 진해, 이노, 통경에 효능이 좋은 수

세미오이의 사과락(絲瓜絡)등이 있으며, 오이 또한 호과(胡瓜)라 불리며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약재입니다.

멜론은 비타민C가 많고 노폐물을 빨리 밖으로 보내주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멜론의 성분은 100g당 수분이 90%로써 당질 7.3g, 섬유질 0.9mg, 칼슘 14mg, 인 12mg, 철 0.3mg, 비타민 A, B1, B2, C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수박과 비교해 볼 때, 단백질 및 지질은 2-3배, 당질은 2배, 섬유질은 9배, 비타민도 2배가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노화방지,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에 좋고, 이뇨 작용이 뛰어나 부종을 해소해 주고 신장의 기능을 보하며,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멜론은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아서 살짝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때가 먹기에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저장할 땐 7~10도 정도, 습도는 85~90%가 좋습니다. 멜론은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신선할수록 단맛이 덜 할 수도 있기에 실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냉장 보관하여 먹는 것이 더 달고 맛있어 집니다. 또한 껍질에 하얀 줄이 촘촘히 골고루 일정하게 있는 것이 달고 맛있습니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멜론을 'pencuci mulut'이라 하여 입을 씻는 과일, 후식으로 가장 즐겨 먹으며, jus, buka puasa 때 다른 과일이랑 섞어서 jus로 먹기도 합니다. 여름철 미각을 대표하는 멜론은 더위에 지친 몸에 원기를 주고 갈증을 풀어 주므로 요즘같이 더운 시기에 잘 맞는 과일이 아닐까 합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한인사회 元老 오세윤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원로(元老)를 찾았다. 하지만 감히 원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나이와 덕망이 부족하거나 경험과 공로가 큰 분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인사회의 역사가 짧아서도 아니었다. 벌써 불혹의 나이를 넘긴 한인사회의 뿌리를 든든하게 받쳐 주었던 원로들에 우리가 소홀했음을 직시하는 순간이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인뉴스는 앞으로 원로 한 분 한 분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 언제 인니에 처음 오게 되었으며 그 계기는?

1967년 28세의 나이에 인도네시아 땅을 처음 밟았다. 한국에선 합판과 가발을 해외로 수출해 처음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하던 때였다. 중국산 가발용 인모가 인니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아 일본에 수입된 것을 다시 국내에서 수입해 쓰던 때였는데 당시 국내 가발용 인모가 부족하여 서울통상주식회사 사장, 가발업 협회 관계자와 함께 인모 수급을 위해 인니에 오게 된 것이다. 국교가 수립된 직후라 인니 비자 발급받기가 어려워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되었다. 그 후 69년에 잠시 귀국했다가 70년에는 개인자격으로 재입국하여 40여 성상을 보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당시 인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달라

당시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40불에 불과한 한국보다 부국이였다. 아직 인도네시아와 대사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던 한국은 총영사관을 개설하여 호텔 인도네시아(Hotel Indonesia)의 객실 3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국과의 직통 전화가 개통되지 않아 일본을 경유하여 연락을 취하던 시기였고 주로 케이블 형태의 전보를 이용하였다. 당시 한국의 대 인니 투자가 거의 없어 양국은 주로 무역을 통한 교류가 오가던 시기였다. 차이나타운의 화교들에게 목재 가공기계,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주방용품, 학용품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도 있었다. 산림개발회사인 한국남

방개발주식회사(코테크)가 이미 진출해 있어서 그분들과 자주 만나는 정도였다. 이후 일본을 통해 필리핀산 원목을 도입하여 합판을 생산하던 대명목재, 태창목재, 동명목재, 성장산업, 한국합판 등이 70년대 초에 인니에 주재원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어 70년대 중반부터 종합상사들이 일제히 지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당시 반도상사(현 LG 상사)의 요청으로 2년간 그들과 협력하였는데 반도상사는 인니전력공사(PLN)에 입찰을 통해 변압기 등을 수출했다.

● **최근까지 가루다 마스(Garuda Mas) 그룹의 중역으로 계셨는데?**

한국의 종합상사들이 인니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수마트라섬 잠비 지역의 원목개발회사(PT.Putra Sumber Utara)가 원목을 수출해 보겠다고 해서 2년 정도 같이 일했다. 그 후 이 회사가 합판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태창목재 출신의 한국인 합판기술자들을 초청하였고 공장설비 등을 도입하였으며, 당시 한국직원들은 한국급료의 두 배 이상을 받았다. 1985년 이 회사가 공장을 매각해 버리자 리아우(Riau) 주 뼈칸baru (Pekan Baru)에 있는 가루다 마스 그룹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합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가루다 마스 그룹은 합판, 인조피혁, 타일, 타피오카 전분, 야자유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룹 회장의 요구로 그룹을 진단한 결과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고향 친인척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개선해 나갔다. 이전까지 대만기술자들이 담당하던 합판 생산업무를 동명목재 출신의 한국인 직원들로 대체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각 시대별 인니 진출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60년대 말부터 한국남방개발(코테크)과 동화기업(인니동화)이 직접투자 형태로 인니에 처음 진출했다. 70년대 초엔 합판회사들이 원목수입을 위해 주재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종합상사들이 지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신

발, 봉재, 가방, 완구, 앨범 등 노동집약산업들이 대거 인도네시아에 몰려 들어왔다. 이때부터 한인사회가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기존의 봉재, 신발, 합판, 조립분야 외에 전자, IT 등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분야가 계속 진출해 오고 있다.

● **130년 전통의 라와망운 골프클럽의 유일한 외국인 운영위원으로 위촉 되었는데... 한인사회의 자랑거리다.**

약 3천명의 라와망운 골프클럽 회원 중 외국인 회원이 250여 명이고 그 중 150여명이 한국인이다. 과거 군 출신자는 대령급 이상만이 회원자격이 되는 프레스티지(Prestige) 개념이었다. '66세대'의 리더였으며 노동부장관과 주택부장관을 역임했던 현 운영위원장인 코스마스 바투바라(Cosmas Batubara) 씨가 외국회원들의 클럽운영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외국인 중 가장 오래된 회원인 저를 위촉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사회기부와 골프클럽 내 식수 등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가끔 골프클럽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인이 있는데 대부분 인니를 잘 모르는 단기 여행객이다.

● **추한 한국인(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서 한동안 화제였는데...**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최빈국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인니인들을 알아 보거나 배려에 인색해지기 시작했다. 서구문물을 더 빨리 접하게 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의 2세대들은 본국의 자녀들과 비교해 훨씬 순수한 면이 있다. 이곳에 사는 이상 언어와 문화를 빨리 터득하여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좋은 점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어글리 코리안 문제는 교민 수가 갑자기 많아지다 보면 어느 사회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들은 한인회나 업체, 지역, 동문별 모임을 통해 성숙해 가고 있다고 본다. 현재 한인사회가 인니 최대 외국인 사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 해왔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한국인의 진출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만한 국민이다. 그렇다고 이를 너무 표면화시키기 보다는 인도네시아를 더욱 이해하고 한 인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그게 한국인의 힘이 아닌가?**

그렇다.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 민간 대표인 한인회, 그리고 교민들 스스로가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한국인은 유난히 애국심과 가족애가 충만하여 특히 외국에 나오면 더욱 열심히 살고 남에게 지지 않겠다는 투지가 강해진다. 지금은 한인사회가 성숙하여 서로 헐뜯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 한인사회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본다.

● **인니인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인니인의 성격과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대부분의 인니인들 특히 자바사람들은 천성이 순수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질 못한다. 그래서 No라 하지 못하고 주로 Yes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는 나중에 Yes를 강요 받았다고 말한다. Yes가 진짜 Yes 인지 아니면 No를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는 인니인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에 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Mr. Oh, there is nothing possible and nothing impossible in Indonesia.” 라고 말하는 의중은 인니인은 No라고 하지 못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식모, 운전수에게 꼭 존댓말을 쓴다. 그들도 집에 가면 근엄한 가장이고 사랑 받는 자식들이기에 존중해줘야 한다. 계약관계일 뿐이지 주종관계가 아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자바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참 편해 진다. 어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장점을 지녔을지도 모른다.



● **자바인들이 온순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1998년 5월 폭동 이후 성향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자바는 농경사회이다. 그래서 인성이 온순한 탓에 선동에 취약한 단면이 있어 가끔 급진성향을 보일 때도 있다. 1965년 9월 공산당 쿠데타 발발 시 그랬으며 1998년 5월 폭동 때도 그랬다. 하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외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내가 먼저 조심해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끔 옆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자카르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는데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디에서나 강력사건은 일어나는 현상이다.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사는 이곳이 좋은 곳이 될 수 있고 형편없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쳐다보면 씨익 웃어주고 느릿느릿하지만 예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정이 드는 나라가 아닌가?

● **향후 한국에서 은퇴 후 이곳에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찾을거라 생각된다. 그들도 교민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텐데...**

실버 사회가 생긴다는 것은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친구가 인니 갔다 오니 인니에 가서 살고 싶더라고 한다. 한인사회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 **해외동포에게 올해부터 참정권이 주어진다. 한인 사회에 자칫 정당이나 지역별 잡음(?)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드는데...**

인니 한인사회는 그 동안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왔기 때문에 별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 같은 원로가 화합을 위해 제 몫을 잘해야 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이끌어 가야 한다.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교민 언론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동문회 등 소모임 등에서도 그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느끼게 되는데...**

일본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곳에 진출해 왔다. 학교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자기 동네에 일본인이 와서 가게를 열고 일본 과자를 팔거나 연 만드는 방법, 팡이치기, 구슬치기를 가르치는 등 참 친절하여 그 친구도 일본인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진주하기 시작하더니 그 동네가게 일본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 장교 군복을 입고 나오더라고 한다. 일본인들은 이곳에 진출하기 전 참 많이 준비한다. 어떤 일본인은 본국에서 8년 정도 인니어를 공부하고 가족은 3개월 정도 인니어 강습을 받고 나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인은 인니 생활, 습관, 언어를 통해 인니를 전

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인니인과 다름에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한다.

미국인은 예의가 바르다. 대체적으로 여유 있어 보인다. 철저한 공부를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우리보다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인들 중에는 인니 역사, 문화, 예술 쪽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딕에 관심이 많으면 바딕을 그리며 바딕 관련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왕 이곳에 왔으니 꼭 자국민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탐구열이 높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배우려 노력한다.



인터뷰 중인 김재민 편집위원과 오세윤 원로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와일드 하다. 체질과 성격이 강하다 보니 겁이 적고 인도네시아에 적응 속도가 빨라 빨리 성장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점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니 진출 전 인니의 문화, 예술, 전통 등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두길 바란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문제 등 교육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외에 스스로 자기 계발의 기회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인니인과의 제한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소양 교육의 중심지가 가정임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한다.

● 늦은 감은 있지만 원로 분들과의 기회를 만들어 40년이 넘는 한인사회의 역사를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42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장 젊었었는데 벌써 원로 소리를 들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인니 한인사 정리는 꼭 필요한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산 증인들은 한 분 두 분 자취를 감출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정리해보 내주겠다.

● 좀 더 진일보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인 사회 내, 외부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시장의 트렌드와 한국 경제의 실정과 정책에 발 빠르게 대처해가며 해외 진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인니는 한국인이 발을 붙이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내가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 법을 잘 지켜야 하며 편법을 이용하면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밀수혐의로 수배 당한 한국인에 관한 기사와 현지여인과의 치정문제로 목을 매어 자살한 또 다른 한국인에 관한 TV방송을 접한 적이 있다.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다 보면 한인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들 사이에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 둘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사적으로 잘 계도하여야 한다.

● 지난 3월 초 이대통령 국민 방문 당시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시간에 이 대통령내외와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는데 당시의 소감이 어떠했는지?

교민 원로를 비롯해 상징성 있는 교민 대표들을 헤드 테이블에 앉도록 배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가 생각된다. 종전의 관치행정을 탈피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시류에 적절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촘촘히 짜인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동석자들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인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여 동포사회의 화합에 힘써 준데’ 대한 원로교민을 치하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엿그제 대사관을 통해 전달 받았다. 역시 우리를 그 자리에 건성으로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런 정성으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부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오세윤 씨는 1939년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부산중고교,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였다. 당시 한국 최대의 가발업체인 서울통상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67년에 자카르타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인도네시아와 42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1997년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최장기 체류 교민으로 슬하의 2남 중 장남은 현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차남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출국세 관련 사항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재국의 출국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한 바 있으나 면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국제 청 공고문과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추가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국제청 공고문 내용

가. 즉시 면제자

(공항 이민국 출국 심사 전 출국세 사무소에서 확인 절차 이행)

- 1) 21세 미만의 개인
- 2) 12개월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
- 3) 외교관
- 4) 국제기구 직원
- 5) 12개월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정부 발행의 거주증을 소지한 인니인 (학생증 포함)
- 6) 정부기관이 인정한 Haji 참가자
- 7) 육로 출국자
- 8) 외국 노동허가증(KTKLN)을 보유한 인니 노동자

나. 납세자번호(NPWP) 소지자

- 1) 인니인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 NPWP 사본, 여권사본, 보딩패스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류에 해당인이 없을 경우)
- 2) 외국인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 NPWP 사본, 여권사본, 보딩패스
 - 지방정부 발행의 가족관계 증명서 (SKSKP)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009년 1월 16일 이후 NPWP는 출발 3일전 발행된 것이어야 함

다. 출국세 면제를 증명(SKBFLN)하는 서류 제출자

- 1) 인니 대학교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
- 2) 외국인 중 학술, 문화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연구자, 선교와 인권 관련 단체 종사자.
- 3) 특별경제지역(바탐, 빈판, 까리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PPH21 및

PPH26 기 납부자

- 4) 사회단체의 비용으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장애인 또는 환자와 그 동행 1인
- 5) 인니 정부를 대표하는 예술, 문화, 체육 단체 회원의 출국
- 6) 외국과의 공식 대학생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통해 출국하는 대학생 및 학생
- 7) 노동이주부의 동의서를 지참한 인니인 노동자

3. 상기 SKBFLN 대상자는 장시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자카르타 세무서로 미리 연락하거나 출발시간 보다 일찍 공항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21-3442442, 021-3504735, 또는 웹사이트: www.pajak.go.id)

4.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021-500-200, 021-525-1234) 및 각급 세무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183일을 초과 한 경우도 해당 됩니다)

2. 납세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가. 상기 SKSKP는 KITAS 소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동 SKSKP를 발급 받아 출국세 면제용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SKSKP 를 발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SKSKP 대신 한국 가족관계 서류를 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할 경우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에 따라 영사과는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내용을 영어로 번역 (대사관 간이양식 비치)하여 영사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청의 유권해석

위 국제청 공고문 중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대사관에서는 동 조항에 대한 국제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명해 드립니다.

1. 12개월 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가. 체류기간이 최근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을 경과한 KITAS 보유자일 경우 당연 출국세 부과 대상이 되며, **EPO(Exit Permit Only, 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경우라도 출국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나. 따라서, 장기체류증(KITAS)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비자나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1년 이내 183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에도 출국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 사회문화비자로 6개월 체류 후 일시 출국 하였다가 곧바로 입국하여 총 체류기간

영사와 추가 안내 사항

1. 공관이 영사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유효기간, 사본제출 가능 여부

영사확인 가족관계 서류의 유효기간이나 사본 제출도 가능 한지 여부는 담당자 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서류는 영사 확인일로부터 1개월간** 그리고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입니다.

2. 영사 확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여부와 주민등록등본등의 발급일 유효기간 적용 여부

영사확인 은 본인 신청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시 본인이 위임장과 촉탁서(공관 비치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서류의 발급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원칙 이고, 기간 초과 서류는 번역된 서류란에 발급일자를 명시하여 처리(다만, 출국세 면제용 이외 공적 서류는 반드시 발급일 3개월 이내여야 함)하고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글: 신유희(문화탐방팀 사무국장)

4월 4일, 토요일, 우리는 코리아센터에서 오전 8시에 모여 이전의 문화탐방과는 또 다른 기대에 부풀어 버스에 올랐다. 먼저 우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세안 조각공원(SUROPATI공원)에 잠시 들른 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녔다는 International Standard School Elementary School Menteng 01 Jakarta (Indonesian: Sekolah Dasar Negeri (SDN) Menteng 01), 를 방문했다. 1934년에 세워진 이 학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학교라 잘 관리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상류층 자제들이 다녔다고 한다. 오바마 스쿨은 1962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인도되었으며, 그 후 Raden Saleh 재단에서 관리했다고 한다.

학교 입구에 오바마의 사진과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도 깨끗하고 정겨운 작은 시골학교 분위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우리들은 탄성과 함께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현지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학교를 돌아보며 학교에 대한 설명

과 오바마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모범학교로 지정된 맨헝 제1 초등학교는 공립이며 국제학교였다. 이 학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성이 대단한 학교였다. 받아들이는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한 해에 57명, 2학급만을 모집하는데, 400명 이상이 지원을 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학생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 기대했던 것보다 꽤 대단한 학교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신다. 마치 시골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 너무나 예상외였지만 학교의 명성에 놀랐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게 가라앉았다.

이곳에서 1970년 4학년을 다녔다는 오바마는 리더십이 강해 스카우트 캡틴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어려운 일과 배고픈 사정을 이해하며,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등 친근감을 갖게 하는 친구였으며, 양보를 잘하는 항상 웃는 밝은 학생이었다고

한다. 학적부에 의하면 그 당시의 오바마의 이름은 Barry Soetoro, 프랑스 초등학교에서 전학, 출생지 Honolulu, 1961년 8월 4일 일생, 인도네시아 시민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바마가 공부했다는 교실에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들 마음도 어린시절로 돌아가 즐거웠다. 나이라는 것은 단지 세월을 가리키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예전에는 운동장으로 향한 교실벽이 없었다고 한다. 칠판도 현대식으로 바뀌어 스크린과 함께 다용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옛날의 분위기가 모두 바뀐 것은 아니어서 우리는 잠시나마 예전의 시간을 공유하며 만끽할 수 있었다.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는 오바마가 살았다는 집으로 향했다.(Jl. Amir Hamzah 22번지) 넓은 안마당과 현재 주인이 살고 있다는 본채의 안쪽으로 아담하게 자리잡은 별채가 오바마가 1970년부터 1971년까지 (당시 10세) 2년 동안 살았다는 집이다. 1939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에 지어져 거의 70년이 지난 집이지만 본채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오바마는 이사 오던 날 많이도 울었다고 하는데... 양아버지를 따라 6세 때 인도네시아로 오면서 그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오바마가 세들어 살았다는 별채는 보수공사 중이었다. 케냐산 커피와 자바산 커피를 마시며, 나만의 이름이 있다고 울고 있는 외로운 오바마를, 열심히 공을 차며, 동구관 공을 어루만지며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외치는 오바마를 만나는 공간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이대로 주택으로 수리한다고 했다.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44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그가 다녔던 학교와 살던 집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세계 각지에서 최소한 40-50명씩 방문을 한다고 한다. 관심이 많은 만큼 이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이곳은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명소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이 집은 지금 자카르타

주정부 문화관광국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꽃나무가 어우러진 앞마당의 정감은 마치 어느 사진 속의 작은 정원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은 작은 소년이 공을 차고 있다. ‘헤이! 이리로 공을 보내봐, 오케이, 그렇지, 패스 패스, 아니 왼쪽, 그렇지,’ 나는 힘차게 날아오는 공을 받는다. ‘아이쿠!’ 나는 그만 넘어지고 만다. 굵은 땀방



울이 온몸을 적신다. 발차기가 발차기로 이어지며 연속적으로 힘차게 공이 솟구쳐 오른다. 태양의 축복을 받으며 초록의 희망이 솟구쳐 오른다.

이 앞마당에서 어린 오바마는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공을 차면서 어린 오바마의 어린 꿈도 차츰 부풀고 커갔으리라.

오바마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의 루오족 출신으로 흑인이다. 그러나 노예의 후손은 아니고 케냐에서 농민으로 살아온 집안이었다. 하와이로 유학을 온 아버지는 백인 여성과 결혼하여 오바마를 낳은 후 가족의 곁을 떠나 케냐로 갔다. 아버지는 가난한 조국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케냐로 돌아가 두 번이나 장관을 했다고 한다. 8년 뒤 잠시의 재회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케냐로 다시 돌아가고, 어린 오바마는 아버지

인니문화탐방

의 부재와 피부색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 그는 그런 그에게 말을 걸어 오던 인도네시아의 초록과 태양을 떠올렸을지도 몰라. 흔들리면서도 살아내라고 그에게 삶의 증거라고 말하는 힘차게 솟아오르던 맨뺨의 공을 그는 잊지 않았겠지.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길을 완전히 잃은게 아니라고 위로를 건네는 맨뺨의 공을, 초등학교 교실을 그는 잊지 않았겠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부욕과 자신감이 오늘날 오바마의 정신이 되어 당당히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지..., 그래서 나는 그를 ‘블랙다이아몬드’라고 칭하고 싶다.

우리 문화탐방팀은 오늘 조각공원과 오바마를 추억하는 학교와 집, 그리고 국립박물관, 몇 곳의 컬렉션이 있는 카페를 돌아보았다. 그 모든 곳이 특징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곳들이었다. 이렇게 ‘블랙다이아몬드’- 그에 대해서만 쓰려고 해도 한이 없이 길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에서는 유물의 해설을 도맡아 해주신 헤리티지 회원 이성래씨가 계셔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세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4층 귀금속관은 보물 창고 같았다. 또 그 유명한, 이제 고인(故人)이 된 Salim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Cemara 갤러리, 테마가 있는 카페 Lolojongrang, 역사가 있는 Buddha Res. 들을 돌아볼 때는 이렇게 시간이 썩이고 역사가 되는 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진지하게 하게 되었다.

문화체험에서 돌아오면 그날 방문한 곳에 대한 감동도 감동이지만, 무엇보다 내가 함께 한 이 시간들이 참 고맙고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진다. 이 또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는 확신으로.

164회 문화탐방

출발: 한인회에서 출발

일시: 5월 21일 목요일 오전 8시-오후 4시30분

장소: 자카르타 시내 / 장소 미정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sagong@hotmail.com





가족이란?

글/사진 김성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구조조정(PHK/Pemutusan Hubungan Kerja)이란 알곳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친하던 동료도 경쟁상대로 몰아버리는 수가 있다. 또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렇게도 잘 맞던 부부가 갑자기 성격차이라며 사랑에 틈이 생기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현상은 나무가 꽃을 열매로 바뀌달고 잎이 낙엽되어 나뭇잎들이 가정의 웃음이 한숨과 울음으로 변하고 종종 아이들이 낙엽처럼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힘듦을 어떤 사람은 혼자 감당하려고 전형적 인생각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만 성공하지 말아야 할 것에 성공하는 예가 종종 있다.

배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낙엽처럼 거리로 떠돌게 된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무료로 공부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년 남자분이 있다기에 나는 그곳으로 갔다. 그곳은 수라바야 시내 버스터미널 근처였다. 구정물에 가득한 워노끄로 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더 후덥지근하게 만들었다.

길모퉁이에 위치한 그곳 이름은 알랑알랑(alang-alang)이었다.

“너는 이곳에서 공부하니 왜 좋으니?”

“여기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 보다 모두 착해요.”

“그러면 이곳에 오기 전과 온 후 달라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니?”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부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고 길러 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은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한 후에 드러나는 현상이 아닐까. 순간 이 여자



아이 대답을 들으니 웬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멘트가 생각났다. “너희들 이따가 장학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대답은 꼭 요렇게 해야 한다.”

긴 단발머리의 그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할까? 나는 궁금했다.

“너희 부모님은 뭐하시는 분이니?”

“엄마는 와룽(warung/포장마차)해요.”

“아빠와 동생은?”

“아빠와 동생 없이 엄마와 살아요.”

“하루에 용돈은 얼마나 되니?”

“1.000 ~ 1.500루피아요”

미니시내버스(Mikrolet) 요금도 2.000 루피아인데 고작 1.000루피아가 그 여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곳에 오기전과 온 후 너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니?”

“오기 전에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귀찮다며 하지 않고 또 말대꾸도 자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엄마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넌 정말 산수 공식 몇 개 더 풀 줄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배웠구나.”

장소도 협소하고 선풍기가 한 대 있긴 있어도 길길 거리며 겨우 돌아가고 아이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 바라보는 Didit 아저씨

었다. 대학생들 몇 팀이 봉사활동으로 나와 있었다. 영화를 보여주는 팀, 율동을 가르쳐주는 팀과 자를 가져 와 나눠주는 팀도 있었다.

그곳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은 Didit Hpre라는 드라마작가 중년남자였다. 긴 머리를 질끈 동여맨 모습 예술가답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고 이런 일을 하게 된지 십년이 되었으며 소문이 퍼지자 가난한 아이들이 너도 나도 공부 배우러왔다고 했다. 어느 비오는 날 인력거 아저씨가 길에서 우는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적도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읽기 쓰기와 종교, 미술,



음악, 기타, 드럼, 키보드, 권투였다. 좁은 공간 선반위에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배운 실력으로 대회 나가 받은 트로피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트로피들 중간에 권투글로버가 걸려 있어 물어 보았더니 권투배운 학생이 전국대회서 우승하고 인도네시아 자랑 권투 챔피언 크리스존에게 받은 기념품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곳에서 권투 배우

는 학생들이 30여명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도로에서 연습하는 것을 보니 문득 가난을 이기고자 샌드백을 두들겼던 김득구 권투 선수가 떠올랐다.

빈자들의 온상지일지라도 그곳에 모인 아이들의 얼굴은 환한 모습들이었다. 한국에도 우리처럼 ‘거리의 아이들’이 있는지 또 이런 곳을 방문해 본격은 몇 번이나 있는지 물어 왔다. 그 많은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런 곳은 오늘이 처음인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오겠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하던 Didit Hape 아저씨를 보니 나에게 죽을 때까지 공부하며 산다고 생각하라 하시던 선생님이 떠올랐다.

그날 만난 몇몇 대학생들에게 부모와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하고 물어 보았다. 나를 보호해주고 한숨을 털어 놓을 수 있고 방귀를 마음대로 뽕뽕 똥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 가족이고 가지 치기 하듯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말했다. 피부색깔은 달라도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가 보다.

수라바야 하늘은 오월이라 그런지 유난히 푸르고 맑다. 푸른 하늘은 물들여진 창호지다. 침 바른 손가락으로 쿡, 찌르면 구멍이 날 것만 같고 그 구멍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푸른 하늘에 놓인 하얀 구름 몇 덩어리가 따듯한 물에 말랑말랑하게 반죽된 것 같다. 가족이란 구름덩어리다. 떨어져 있다가 언제 만나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름덩어리. 오월은 가정의 달인데, 잘 반죽된 구름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인도네시아 하늘에 띄우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구름카네이션이 보일까.

옆집 할머니

얼굴만 마주치면

평상에 앉으라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잡아 끄는 할머니

바나나 툇 떼어내
거저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는 할머니

‘하나라도 더 파세요
하나라도 더 파세요’

꿈뻑 꿈뻑 꿈뻑
커다란 두 눈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젊은 며느리

미안해서 얼른 먹고
천둥호박 한 덩이
사갓고 온다네



이 영 숙

- 한국문인협회
- 종로서적 출판 편집부 근무
- 서울 케이블 TV 주최 '엄마와 떠나는 문학여행'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나프레스 신춘문에 시부문 우수상 당선



광우병에 이어서 이번에는 돼지 독감으로 인해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돼지독감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재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전 세계가 돼지독감 확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돼개는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한다. 돼지고기에 의한 감염은 없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돼지독감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문답형식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Q: 돼지인플루엔자는 어떤 질환인가

A: 돼지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생기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다.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돼개는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난 3~4년 동안 12명의 환자가 보고됐을 정도로 드물다. 물론 지난 1976년 뉴저지에서는 200명 이상이 감염돼 사망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Q: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WHO와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은?

A: 돼지인플루엔자는 사람 사이 감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멕시코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잘 되는 신종 바이러스로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 멕시코에서는 사망률이 5~1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WHO 등은 이에 따라 자칫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Q: 돼지인플루엔자 증상은?

A: 증상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발열, 무력감, 식욕부진, 기침, 콧물, 목통증 등과 함께 설사와 구토, 구역 증상을 수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돼지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난 뒤 7일까지 전염력이 있지만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전염성도 지속된다.

Q: 치료는 가능한가?

A: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치료 및 예방약으로 추천하고 있다.

Q: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막으려면?

A: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재채기를 할 때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린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한다.

Q: 돼지고기로 감염될 가능성은? (수입삼겹살은 먹어도 될까?)

A: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1℃ 이상으로 가열하면 쉽게 죽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먹고 돼지독감이 전염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Q: 일반적인 독감과 다른 점은?

A: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도를 통해 침입해 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으로 평균 사망률은 0.1%다. 그러나 현재 돼지독감의 감염자 대비 사망률은 5~10% 수준이다.

한-ASEAN CEO Summit 참가안내

올해는 한국과 ASEAN간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여 제주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본 회의소는 오는 5.31(일)~6.1(월)까지 제주도에서 ‘한-ASEAN CEO Summit’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CEO Summit에는 ASEAN 10개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대표, 역내 글로벌기업 CEO, 학계 등 각 분야의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세계경제전망, 기업의 성장전략, 녹색성장 등 글로벌이슈를 짚어보고 한-ASEAN 경제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 기간/장소: 2009. 5. 31(일) ~ 6. 1(월), 제주도 (ICC제주 5층 탐라홀B)

나.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후원: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제주특별자치도)

다. 행사일정: 유침 ‘한-ASEAN CEO Summit 일정(안)’ 참조

라. 참가대상: 국내 경제계 대표, ASEAN 국가 기업인 및 정부대표단 등

마. 행사관련 참고사항

- 행사참가비(무료), 왕복항공료 및 호텔비는 개별부담
 **호텔은 대한상의에서 일괄예약
- 공식행사, 오찬, 행사장-숙소호텔간 셔틀버스 등 제반경비는 대한상의에서 부담

바. 신청기한/방법: 별첨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4.24(금)까지 제출(기한이 지날 경우 재인한인상공회의소에 문의바람) ※행사개요 및 참가신청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나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co.id)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일시 | 프로그램 |
|---------------|--|
| 09:00 | - 등록(장소: ICC제주, 외부 등록센터) *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 오전 | - 녹색홍보전시관 관람(장소: ICC제주 3층, 행사기간 동안 운영) |
| 14:00 ~ 14:45 | - 개회식 「변화, 도전, 그리고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협력 (Change, Challenge, and Collaboration for Asia's Prosperity)」 ○ 개회사(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기조연설1,2 |
| 15:00 ~ 16:15 | - Session 1 「세계경제 전망과 아시아의 역할」 ○ 주제발표: 미정 ○ 사회: 현정택 교수 (전 KDI원장) ○ 패널리스트: · 마리펜겟츠 인도네시아 통상장관 · 시에드 알리 말레이시아상의 회장 |
| 16:15 ~ 17:30 | - Session 2 「무역·투자활동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 ○ 기조연설 (아세안 정부대표) ○ 주제발표: 모하마드 루스피 인니 투자청장(미정) ○ 사회: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패널리스트: · 홈플러스 소랄레이 라오스 투자청장 · 유원민트 미얀마상의 회장 (미정) |
| 18:00 ~ 19:30 | - 대한상의 주최 환영리셉션(ICC 제주, 탐라홀 C) |
| 20:00 | - 한·아세안 오케스트라공연 관람 (ICC 제주, 탐라홀 A) |

| | | |
|---------|---------------|--|
| 6.1 (월) | 09:30 ~ 11:00 | - Session 3 「변화하는 세계와 기업의 성장전략」 ○ 주제발표: 미정 ○ 사회: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 ○ 패널리스트: · 아린지라 ASEAN BAC 회장 · 탄리아벵 텔콤 회장 (미정) |
| | 11:15 ~ 11:4 | - 한국투자환경 설명회 ○ 한국 투자환경 (인베스트코리아) ○ 제주도 투자환경 (제주특별자치도) |
| | 11:45 ~ 12:45 | - 한·아세안 기업인 오찬 환영사(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
| | 13:00 ~ 14:15 | - Session 4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 ○ 주제발표: 아킴 스타이너 UNEP사무총장 ○ 사회: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장 ○ 패널리스트: · 피터 파빌라 필리핀 상공부 장관 (미정) |
| | 14:30 ~ 15:15 | - 폐회식 ○ 특별연설1 (아세안 정부대표) ○ 특별연설2 (아세안 정부대표) ○ 폐회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레이프 가렛과 슈주의 사이는 너무 멀어



유춘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요즘 딸은 빅뱅의 시대를 보내고 슈퍼주니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완전 미쳐있다. 한번 몰입을 하면 뒀든 끝장을 보는 성미인지라 예감은 했지만 이젠 슈주(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에 완전 필이 꽃혔다. 이게 한국에 있을 때 수학을 8시간씩 공부하던 딸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다.(그땐 딸이 수학에 미쳤는지 알았었다.)

나는 이 상황을 내가 가진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내의 여왕이란 이야기는 아니다. 한번씩 뒤집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가 있다. 해서 요즘은 묵언을 선언하고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지만 인

지라, 나도 가끔씩은 돈다.

하긴 딸이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언어의 혼돈으로 인한 제 안의 스트레스를 저런 몰입을 통해서 해결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 때 나도 <레드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에 미쳤었으니까 말이다. 그 엄마에 그 딸이라고 해도 좋다. 불 같은 성질까지 닮았으니.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건, 친정 엄마가 이담에 너랑 똑 같은 딸 나서 실컷 고생해보라고 했던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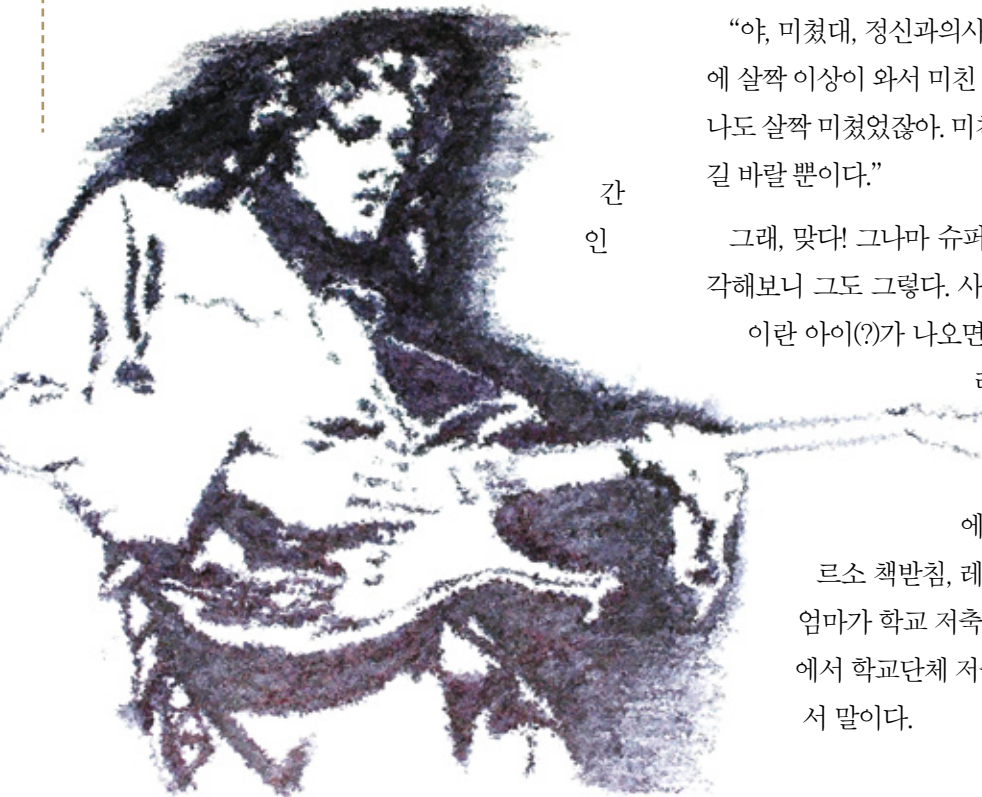
친정엄마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고생중인지도 모른다. 의학사전에도 나와 있지도 않다는 중학교 1학년의 증세를 감내하면서, 같은 사춘기 딸을 키우는 친구가 웃음을 터트리며 농담처럼 그랬다.

“야, 미쳤대,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사춘기는 뇌의 구조에 살짝 이상이 와서 미친 거란다.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다. 나도 살짝 미쳤었잖아. 미친 거 하고 무슨 말을 하니.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그래, 맞다! 그나마 슈퍼주니어에 미쳤으니 다행이다. 생각해보니 그도 그렇다. 사실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에 한경이란 아이(?)가 나오면 나도 살짝 눈이 가기는 한다. 그

러니 더 말해 무엇을 하겠는가. 왕년에 연예인 한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나도 소시 적에 연예인을 엄청 좋아해서 소피마

르소 책받침, 레이프 가렛 사진을 모았다. 그것도 엄마가 학교 저축(어려운 그 시절엔 저축 장려차원에서 학교단체 저축이 있었다)하라고 준 돈을 뺏쳐서 말이다.



간
인

그때 레이프 가렛의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 않았다. 오죽하면 지금은 트롯트 신사인 현철 아저씨조차도 레이프 가렛의 댄스곡을 번안해 부르면서 방정을 떨었을까. 그땐 누구나 그의 흥내를 냈었다.

그룹 <레드제플린>의 기타리스트<지미 페이지>, <듀란듀란>, <아바>, <비지스>..... 내 젊은 날 순수의 벽을 스티커 사진만으로도 낭만시대로 만들어 주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젊음도 한 때이듯 인기도 한때라는 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조용필이나 윤수일 같은 왕년에 날리던 젊은 오빠였던 그들과 다르지 않은 전철을 밟고 있을 게다.

공부? 물론 머리 만 믿고 열심히 안하고 소설책 읽느라고 정신 팔려서 성경시간에도 그리스신화 읽다가 그 온유하신 표정의 성경선생님을 열 받게 하고 결국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서 그리스 신화를 머리에 이고 벌을 썼었다. 그때 국으로 벌이나 썼으면 좋았을 걸 괜히 선생님께 그리스 신화나 성경이나 다 신화 아닌가요? 라고, 싹뚱바가지 없는 소리를 덧붙인 덕분에 그야말로 온유하신 그분에게 무지 깨졌다. 뭐 지금은 그때의 얼얼함을 다 잊었지만 말이다. 아마 그때 나도 사춘기라서 살짝 맛이 갔었나 보다.

오늘도 딸은 이어폰을 들고 슈주 청년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영어 단어를 외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그래 즐겨보자.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도, 질주중인 딸의 일상도.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애가 둘이나 더 있어서 앞으로

이런 혼돈의 시기를 두 번이나 더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바라는 것은 좀 더 부드럽고 완만하게 바람이 지나가기를 바랄뿐이다. 지금은 비록 폭풍이나 다음은 미풍, 또 그 다음은 산들 바람처럼 지나가기를! 그래서 내가 통과했듯이 나의 세 딸도 무사히 통과해서 나뉘는 생각과 사고를 갖은 멋진 여자로 거듭나기를!

요즘 나는 알베르 카뮈가 타파사에 머물면서 쓴 <결혼/여름>을 다시 꺼내 읽고 있는 중이다. 삶이 정신 없거나 혹은 너무 완행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읽으면 좋은 책이다. 그는 '사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삶을 증언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법이다. 그리고 창조하는 시간도 따로 있다. 나는 오직 내 몸 전체로 살고 내 마음 전체로 증언 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지금 딸은 살아내며 창조하는 시간의 한가운데 있고, 나는 나중에 반드시 삶의 시간을 증언을 하리라. 물론 친정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똑 같은 딸 낳아서 죽도록 고생해보란 말 같은 건 하지 않을 생각이다. 어쨌든 요즘의 딸을 보고 있자니 인생은 전 인권의 노래처럼 돌고돌고 반복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스나얀 소고 옆 Sentral Senayan 1 건물 17층), Tel: 021-572- 5870

MUSEUM TOUR

지난 4월부터 무료 국립박물관 한국어 관람 안내의 일정이 바뀌었고 개장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셋째 주 토요일 9시 30분입니다. 4월 7일 박물관에서 투어가이드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이 개장한 발리, 깔리만탄, 파푸아 민속관의 자료를 다음 달까지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직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최근 신설되어 김효숙, 이성래, 유진씨가 이를 위해 자원 봉사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토) 10시에는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서예가 손인식님께서 “서예와창의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30일 10시에는 “인도네시아 근현대 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송삼순 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School Program

4월 8일 JIKS 초등학교에서 100여명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김영덕씨가 진행하는 ‘족자’ 발표가 있었고 파워포인트 작업을 김종심씨와 이정희씨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4월 13일에는 중학교 9학년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발리’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진 사회로 진행되었고, 기경화씨와 임희옥씨가 파워포인트를 맡아서 작업해주었습니다. 수학 여행을 가지 전에 학생들이 족자와 발리 및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Photo Club

4월 4일 10시에 빠꾸부워노 아파트에서 꽃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사진에 대해 정수주 님이 발표를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6명이 출석하여, 반서

터 활용하기와 구도 잡기에 대해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월 29일은 뽀작에서 풍경사진 찍으러 갔으며 발표자는 전인영씨입니다. 5월 13일에는 4시에 모여서 석양 사진을 찍으러 갈 예정입니다.

●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안내

매월 첫째 주 화요일 9시 30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9시 30분

국립박물관 개장 시간 연장

화 - 목 : 08:30-16:00

금 : 08:30-11:00 13:00-16:00

토 - 일 : 08:30-17:30

공동 회장 : 이수진 0816-1300-210

이종숙 0812-838-1294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 **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12**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

GET 동사는 영어의 50%

“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지난 2008년 6월에 니콜라스의 체험영어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벌써 1년이 지나 12호가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영어의 know-how가 보탬이 되어, 교민 2세 까지도 영어에 자신이 생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만, 독자층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초급, 중급, 고급 영어를 골고루 게재해야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는 1주년 특집으로 GET 동사를 알고 쓰면 얼마나 영어가 쉽게 느껴지는지 그 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a new job. 난 새 직장을 구했어

I get 10 dollars an hour. 난 시간당 십 불을 벌어

What time will we get there? 우린 언제 거기 도착하니?

Will you get me a taxi (=cab)? 택시를 불러줄래?

Get out of my house! 집에서 나가!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

Get out of my sight! 내 눈 앞에서 꺼져!

What kind of car have you got? 넌 어떤 종류의 차를 갖고 있니?

(note) have got은 '무엇을 갖고 있다' 의 뜻이므로 무조건 have의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I've got a cold. 감기가 걸렸어

Don't get angry with me. 나한테 화내지마.

It is getting cold.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I got lost. 난 길을 잃어버렸어.

John is getting married in June. 잔은 6월에 결혼해

Let's get moving! 야 빨리 움직이자!

Get John to do this job (=Let John do this job=Make John do this job). John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해.

(주) Get someone to do=Make(또는 Let) someone 원형 동사를 써서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의 뜻임

We will get to know each other as time goes by.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조금씩 알게 될 거야.

(note) as time goes by; 시간이 가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 숙어

I get the message. You don't want me to come with you.

English 칼럼

이제야 네 뜻을 깨달았어. 넌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지?

(주) Will you come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Did you get it? (=Did you hear me? =Did you follow me?) Yes, I got it: 이해했니? 응 이해했어.

What can I get you? 무엇을 드릴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물을 때)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I will get you a coffee. 내가 커피 타줄게

(주) 우리는 학교에서 a cup of coffee, a glass of beer 등을 배웠지만 실제로 쓰기는 a coffee, two beers 식으로 편하고 간단하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Go and get me a cloth, would you? 가서 옷 좀 갖고 올래?

(주) Go and get him! 가서 그를 잡아와 (영화 대사에서 많이 쓰임)

You'd better get those wet clothes off. 젖은 옷을 벗는 게 좋겠어

(note) get something off=take something off: “벗다”의 뜻. had better + 동사:무엇 하는 것이 좋겠어(명령어에 비해 약간 부드러운)

Who is going to get the dinner tonight? 누가 오늘 저녁을 요리할래?

I will get the phone (=I will answer the phone=I will get it) 내가 전화 받을게

I will get the door (=I will answer the door=I will get it) 내가 문을 열어줄게

You have got me there. 네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 = I do not know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 am going to get you for that. 내가 널 혼내 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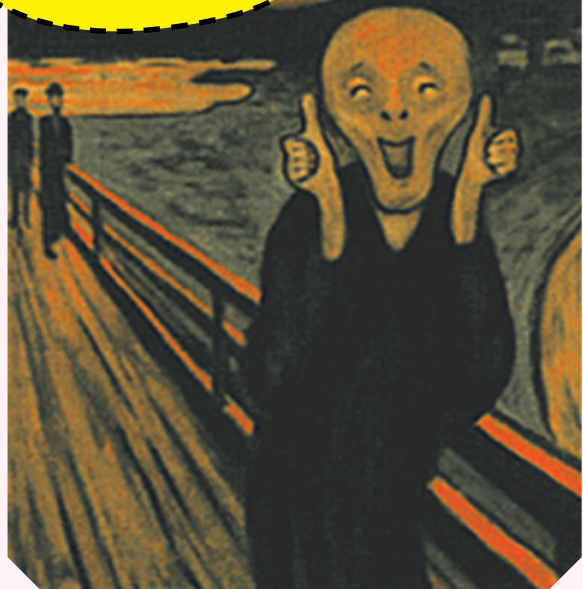
I will get it fixed. 내가 그것을 고칠게

I got you. 널 잡았어(널 잡혔어)

(주) Gotcha 또는 Got you로 짧게 쓰기도 함

You got it(=I will get you for you) 내가 얻어 줄게(누가 무엇을 구해다 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I got two thumbs-up from my boss!



서 직역하면 “넌 이미 받은 거야”지만 실제 뜻은 “내가 얻어 줄게”의 뜻임

I will get a shower. 난 샤워 할거야 (= I will take a shower)

What have we got? 무슨 소식(진전) 있나?

Get him on the line! 그를 연결해줘 (전화 통화 시)

(주) Get the president! 대통령 각하를 바꿔 많은 사람들은 get동사를 쓰면 고급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하게 많이 쓰이고 있음

Let's get some stretch! 기지개를 켜고 몸 좀 풀자

You will get thumbs-up from your friends. 친구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게 될 거야

(주) thumbs-up은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펴서 올려 보이는 것으로 대단히 만족스러움을 표현, thumbs-down은 반대로 내리는 것으로 불만스러울 때 씀, 예전 로마시대 때는 검투사들끼리의 경기에서 황제가 싸움에 진 검투사에게 죽이라는 명령 표시로 쓰였음.

I got two thumbs-up from my boss: 상관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어

I got standing ovation from the audience: 청중으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어

You have to get some work done. I am not in the mood for work. 난 끝낼 일이 있어(이 일을 끝내야 해) 난 일할 기분 아니야

(주) I am not in the mood: 애인, 부부 사이에서 무언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잡으려고 할 때 상대방이 가볍게 거절 할 때 많이 쓰임” 난 그럴 기분 아니야”

Let's get the president out of here: 대통령을 모시고 빠져나가자

It really gets me the way people talk about me behind my back. 사람들이 내 등뒤에서(=나 모르게) 내 얘기 하면 정말 짜증나

Get the birds in the air now: 비행기를 공중에 띄워(즉, 출격 시켜 의 뜻)

(주) bird는 군대에서 쓰는 은어로 “새”가 아닌 “비행기”의 뜻. in the air: 공중에

You look tired. Sit back and get some rest!

피곤해 보이니 등을 의자에 기대고 좀 쉬도록 해

(주)to take rest= to get rest

She is getting better. 그녀는 건강이 나아지고 있어

(주) 영어란 쉽게 생각 할수록 쉽게 터득 할 수 있습니다. 골프 swing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고 문법 등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욱 꼬이는 법입니다.

8. 출장/여행 영어

11) 수취 대, 공항에서 짐 찾는 곳.

Carrousel=Conveyor belt

(주) carrousel은 회전목마(merry-go-round)의 뜻도 있음

12) 비행기 좌석 위 짐칸. Overhead bin

(주) compartment 칸막이,구획;(객차,객선 내의) 칸막이 방

13) 비용이 얼마나 들겠니 비행기로 런던에 가는데?

How much it will cost to take a flight to London?

(주) How much do you charge for this? 이 요금은 얼마예요?

14) 음식을 드시고 난 후 쟁반이나 음식수레는 방밖에 두지 마시고 룸 서비스에 전화 주시면 치워드리겠습니다.

Please call room service for pick up instead of placing the tray or trolley outside your room

(주) instead of 하는 대신에, 하지 않고

15) 일정을 하루 앞당겼어.

We have pulled forward our schedule one day.

9. 무역/경제/재정/금융 영어

11)경쟁력. Competitive edge=Competitiveness

(주) edge 우세, 강점

12) 최종 소비자. End user=end consumer

(주) end user 가 훨씬 많이 쓰임

13) 독점 Monopoly

(주) dumping 투매, 덤핑

14) 절정과 최하 점 시기 The peak time and the valley time

(주) 계절로 표시되면 peak season and valley season

15) 연쇄 반응=도미노 효과 Chain reaction=Domino effect(하나의 사건이 다른 일련의 사건을 야기시키는 연쇄적 효과)

(주) Chain of command 지휘[명령] 계통

10. 정치/사회 영어

11) 억제와 균형(입법, 사법, 행정 삼권간의)은 같은 방식으로 성립되지 않는다/우리는 현실에 맞추어

The checks and balances do not work out in the same way. We have to live with reality

(㉞) work out (문제가) 풀리다, 성립하다, live with 와 함께 동거하다, 현상 따위를 받아들이다

12) 언론 조성자 Opinion former

(㉞) opinion leader 언론을 이끄는 사람

13) 매사에 그는 직접적이다(예, 아니오가 분명하고 돌려말하지 않는다)

He is very much black and white=he is very much straight forward

14)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다

We will support him until the last drop of our blood

15)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어

I have not found the grounds for doing so

(㉞) adjust 옷의 치수에 맞추다.fit address on a person
옷을 아무의 치수에 맞추다

(주2) 검은색이 내게 잘 어울리니? Is a black good color on me?

15) 안목이 있어 그녀는 패션에 대해

She has an good eye for fashion

(㉞) have an good eye for 안목이 있다



다음 13호(2009년 6월), 12) 의학/건강 영어, 13) 영화에 자주 나오는 법/경찰/액션 영어 14) 이메일/영문 편지 15) 연예계/Media로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짱” 니콜라스 올림

11. 패션/쇼핑 영어

11) 나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되면서 흔치 않고 좀 색다른 것들을 항상 찾으면서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난 유지해

I maintain my own unique style by only following trends I feel suit me, and search always for something a bit rare, a bit different

12) 비싼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디자이너 신발을 신을 필요 없어. 그것들이 다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We don't have to wear designer cloths or shoes but we can be happy without all that

13) 보는 것은 무엇이나 탐내 그녀는

She wants everything she sees.

14) 몸에 맞게 치수를 조정해 줄래? / 너의 새 드레스는 몸에 꼭 맞아

Will you adjust my dress to fit me? (=Will you fit my address on me?) / Your new dress fits you well



She has an good eye for fashion.



중재 (분쟁해결 제도 2)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0. 중재(Mediasi)

Arbitrase는 관계 당사자가 Arbiter(심판관)를 지정하고 Arbiter들이 재판하여 판결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인 재판 제도이나 Mediasi는 관계 당사자가 Mediator(중재인)을 지정하여 Mediator는 엄정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협상을 통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여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Arbitrase와는 다른 분쟁 해결 제도이다. 오래 전부터 민사소송법에 Mediasi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1999년 중재법 발효 이후 Mediasi 제도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10.1.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중재인(Medaitor)를 지정한다.

10.2. Mediasi는 Mediator의 도움으로 양자가 직접 협상을 통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Mediator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

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이며 여하한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10.3. Mediasi로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거나 그 책임이 Mediator에게 있지 않고 모든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있다.

11. 분쟁해결에 Mediasi는 왜 필요한가?

법원의 판결과 Arbitrase 판결은 두 제도의 본질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Win-Win 판결을 줄 수가 없으며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다. 청구자가 승소하면 피청구자는 패소하고 피청구자가 승소하면 청구자가 패소하는 것이 재판과 Arbitrase의 생리이다. 그러나 Mediasi는 법원의 판결이나 Arbitrase 판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Mediator는 결정권이 없고 분쟁 당사자들이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거들어 주기만 하며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Win-Win 해결이 가능하다. 공장 건

물 건축을 발주한 A사와 건축을 시공한 B사 간에 분쟁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11.1. 공장 건물 건축이 완료되었는데도 B사가 부당하게 공사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대금 지불을 계속 요구하고, B사는 A사가 시공한 공장 건물의 품질이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사가 시공한 건물의 지붕에서 빗물이 세어 공장 안에 설치된 기계가 빗물에 젖어 기계를 쓸 수 없게 됐고 기계 가동을 못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Buyer에게 제품을 납부하지 못해 이에 대한 Claim을 당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A사가 B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i) 변호사를 선임하여 B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지불 청구 소송을 청구하면서 B사의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B사는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고 A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한다. 소송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의무적으로 중재(Mediasi)를 권유하고 Mediator의 중재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심리가 시작된다. 건축 관련 분쟁이므로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전문가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 전문가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 법정 증언 비용은 전문가를 법정에 증인으로 요청한 측이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거쳐 확정 판결문이 나오며 확정 판결문이 나오면 승소자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11.2. A사와 B사가 공사 계약서에 공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Arbitrase를 통해 해결한다고 미리 약정하였으면 손해 배상 청구를 Atbitrase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계약서에 Arbitrase 조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Arbitrase 조항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시킨다. Arbitrase는 계약서에 중재기관을 지정하면 지정된 중재기관에서만 중재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D)을 지정했으면 반드시 BAND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ICC Rule에 의한 싱가포르 중재를 약정했으면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서 중재는 불가하다. 중재를 신청하려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고 중재원에 등록되어 있는 Arbiter들 중에서 Arbiter를 선임해야 하고 공식 Arbitrase비를 지불해야 한다.

중재 심리 중에 중재 청구자와 피청구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전문가 증인을 듣는다. 이때에도 전문가 증인에 소용되는 경비는 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한 측이 부담한다. Arbitrase 판결문은 통상 180일 이내에 나오나 Arbiter들이 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서에 중재기관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리만을 위한 임시 중재인(Arbitrase Ad Hoc)을 선임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먼저 청구인이 Arbiter을 지명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 상대측도 Arbiter를 지명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이 지정한 Arbiter와 피청구인이 지정한 Arbiter가 협의하여 제삼 다른 Arbiter를 지정하여 청구인의 Arbiter와 피청구인의 Arbiter와 제삼 다른 Arbiter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중재위원회가 재판부가 되어 중재를 한다. 한글에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Arbitrase를 “중재”라고 번역했지만 내용으로 보면 Arbiter로 구성된 민간인 재판제도를 의미한다. 법원에서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Arbitrase에서는 Arbiter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 Arbitrase에 작용되는 절차법(재판을 하는 방법)도 민사소송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Arbitrase의 판결문은 법원에서 내린 최종 확정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양측을 구속하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패소한 측이 혹시라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패소자의 소재만 파악이 되면 패소자 거주국 법에 의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분쟁을 Arbitrase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계약서에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그 해결을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 National Arbitration Board/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에 의뢰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납품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Seller의 입장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BANI 조항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2.3. A사와 B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 측에게 Mediasi(중재)를 제의할 수 있다. Mediasi는 Mediator 자격증을 갖춘 Mediator가 행하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Mediator를 만나면 분쟁이 Mediasi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도네시아 중재 센터(Pusat Mediasi Nasional)와 각 지방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Mediator를 지정하면 Mediator가 양 측을 따로 만나서 사건을 먼저 파악하고 중재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따로 만나거나 중재가 시작되면 함께 만나 협상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따로 만나는 방식으로 양측의 주장을 직접 말하고 듣게 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Mediator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하며 결정도 양 당사자가 내려야 한다. 분쟁 해결의 결과, 즉, 합의를 Mediator의 도움으로 당사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자신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닌 Win-Win 해결 방식이 가능해진다. Mediasi는 경비 면에서도 소송이나 Arbitrase 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Mediasi 의뢰 시 최초 법정 기준인 8시간 Fee를 선불하고 해결이 안 되어 Mediasi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 단위로 Fee를 선불해야 한다. Mediator의 시간급 Rate는 Mediator에 따라 다양하다. 법원에 민사 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송법상 의무적으로 Mediasi 과정을 거친 후에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심리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Mediasi를 먼저 시도해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2. 민사소송의 Mediasi 과정 의무화

오랜 역사를 가진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에도 Mediasi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Mediasi에 관한 대법원장령을 2003년에 공포 후 다시 2008년에 개정 공포하여 상업법원, 노동법원, 소비자 분쟁 해결에 관한 항소심 및 공정거래감독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모든 민사소송은 반드시 Mediasi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Mediasi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재판의 판결문은 원인무효라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12.1. 소송 당사자들의 Mediator의 지명권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법원에 등록된 공인 Mediator, 판사 혹은 전문가를 Mediator로 지명할 수 있다.

12.2. Mediasi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들이 공개 Mediasi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재판부는 최초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Mediasi를 의무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Mediasi를 통하여 합의가 되면 합의의 판결문을 내리고 Mediasi를 통하여 합의되지 않으면 심리를 개시한다.

12.4. Mediasi 기간은 최장 40일이며 원고와 피고가 합의 시에는 추가로 14일 연장이 가능하다.

13. Mediasi를 규정한 제 법규

Mediasi 제도는 현행 많은 법규에 나와 있다.

- 13.1. 중재 및 분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
- 13.2. 상업비밀에 관한 2000년 법률 제30호
- 13.3. 디자인 인터스트리에 관한 2000년 법률 제31호
- 13.4. 특허에 관한 2000년 법률 제14호
- 13.5. 상표에 관한 2000년 법률 제15호
- 13.6. 건축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18호
- 13.7. 소비자 보호에 관한 1999년 법률 제8호
- 13.8. 산업관계(노동)법원에 관한 2004년 법률 제4호
- 13.9. 환경에 관한 1997년 법률 제23호
- 13.10. Mediasi 에 관한 대법원장령 2008년 제1호

13.11. 은행과 고객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중앙은행
규정 2005년 제7/7/PBI/2005호

13.12. 토지 분쟁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 2006년 제
10호 및 토지청장령 2006년 제3호

14. 형사사건을 Mediasi로 처리가 가능한가?

Mediasi의 법률 영역은 본질적으로 민사 분야이다. Mediasi의 모법인 중재 및 분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에 중재의 대상은 상업분야이며 분쟁 당사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권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1997년 법률 제23호는 환경 범죄는 법정 밖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에서도 산림범죄는 분쟁 해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는 Mediasi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국가의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및 집행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소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 한인 Mediasi 제도 제정의 필요성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분쟁이 없는 곳이 없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 없는 곳이 없으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필자가 접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간에 분쟁은 대부분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분쟁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건축 시공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믿고 투자를 했는데 상대가 투자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려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 등 채권채무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채무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유를 대고 채무 변제를 거부하거나 늦추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파산청구 소송 혹은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권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 채무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채권자는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채무 변제가 늦어질 수 있으며 채무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변제 지연이나 도산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진행 과정이 있으며 채무자는 누구보다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채무자에게 성실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피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채권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 회수를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 채무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은 채무자의 의지와 상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권채무 분쟁 발생 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위해 한인 Mediasi 제도를 제정하면 채권채무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인 Mediasi 제도를 제정하려면 우선은 이 제도를 주도하는 기관, “예”를 들면 “한인회” 혹은 “한인상공회의소”가 있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공인 Mediator 자격증을 취득한 한인 공인 Mediator가 최소 3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한인 Mediasi 제도가 발효되면 한 인간의 채권채무 분쟁 해결 패턴이 강압적인 법정 해결 방법에서 점차적으로 평화적인 Mediasi 해결 방법으로 바뀌고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글 : 허영순 작가 (Oktn : KBS WORLD INDONESIA)
 자료 제공 : OKTN (KORINDO)

말... 말... 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애정을 표현 하는 말, 감정을 표출 하는 말,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말, 교감을 형성 하는 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필요한 말과 필요 하지 않은 말... 말과 관련된 속담들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최근, 방송 포함한 언론 매체에서 인물이나 상황의 직시적 감정 표현이나 상황을 현실적으로 전달을 위해 욕설까지도 스스럼 없이 사용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빨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욕설 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참 많은 언어 입니다. 청소년들 혹은 어른들이 욕설을 조사처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보다 말(욕)을 통해 비난, 무시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 프로에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언어 생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학부모들은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욕설을 거침 없이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욕설 은 남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로 격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타인을 조롱하거나 저주 할 때 쓰는 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이나 물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대국으로 돼지 고기를 기 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 같은 놈 이라는 표현 의 Dasar Babi ! 과 Anjing! (개)Monyet!(원숭이) Sampah!(쓰레기)와 같은 표현들을 남을 비하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설 이라고 하여 모두 듣기 싫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사랑 금지 욕설 “Permata Hatiku” 이 가족간의 이해, 용서, 화합 이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종영 되었습니다. 금주부터 새 주말 드라마 “술 약국 집 아들들” “Putra-putra Kebanggaanku” 가 시작 되었습니다.

4형제, 그것도 잘난 아들 넷을 둔 가정, 그 속에서 보여지는 가족사, 어느 하나 못난 것 없는 아들들 이지만, 장가를 못 가 엄마는 속상하지만, 엄마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런 아들들 입니다. 새 주말 드라마 “술 약국집 아들들” “Putra-putra Kebanggaanku”

[어근은 Bangga: 자랑 스러운 “나의 자랑스런 아들들” 입니다.] 첫 부분부터 어머니의 험한 욕설 로 시작 됩니다.

“호랑 말코 같은 이 사기꾼에 천하 날 건달 같은 자식이”

*호랑 말코 : 주로 사회 규범, 윤리, 법도, 예절, 등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욕하는 데 많이 쓰였다.

“Dasar tak tahu sopan santun, penipu dan berandalan!”

욕설은 남을 비하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인데 본 드라마에서 어머니(옥희)가 하는 욕설은 왜 구수 하게 들릴까요?



내 사랑 금지옥엽
Permata Hatiku



극중 조연 역할로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드라마에 웃음을 준 두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장금이와 식당 서빙녀입니다. 동성친구처럼 언니처럼 지내던 여성스러운 장금 이가 대뜸 그녀에게 사랑 고백 아닌 사랑 고백을 하며 닭살 멘트를 날리자 놀란 그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봐! 아유 소름끼쳐. 닭살 돋았잖아.
Lihatlah! Aku jadi **merinding**.
Bulu romaku jadi berdiri.

Merinding 어근은 **Rinding** 으로 오싹 소름이 끼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 *Aku merinding saat melewati kuburan.*
무덤 옆을 지날 때 소름이 끼쳤다 (오싹했다)

Bulu roma 는 숙어로 몸에 난 털을 의미 합니다. Bulu 는 몸에 난 털 외에도 깃털, 동물의 털을 표현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름 끼치거나 오싹하여 놀라면 “어머~ 닭살 돋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몸이 난 털이 일어서 꼭 털 뿜힌 닭살의 모양이 된다는 뜻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소름 돋거나 놀라거나 할 때 우리 말의 닭살 돋는다 라는 표현처럼 쓰이는 Bulu romaku jadi berdiri.(어근 Diri: 서다/ 자신, 자아. 자동차 Ber-가 붙어berdiri 서다 가 됩니다) 가 있습니다.

내 사랑 금지옥엽 마지막 회에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나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아버지들의 마음과 가정에서

의 가장 역할을 잘 표현한 시로 드라마는 끝을 맺었습니다.



Orang-orang yang sibuk, gigih dan selalu bepergian.
Akan menjadi seorang Ayah di rumah.



Akan menyalakan api demi anak-anak.
Dan membuat ayunan untuk anaknya...
dia akan menjadi Ayah.



Menutup pintu agar terhindar dari angin malam.
Ayah akan membersihkan dedaunan musim dingin untuk anaknya.



Dia bekerja keras di luar dan menjadi pagar untuk melindungi anak-anaknya.



Takkan terlihat airmata di mata Ayah.
Dia teteskan air mata di Bir yang diminumnya.



Kesalahan ayah akan dibersihkan saat menjadi seorang ayah.

Menjadi orang yang baru dengan darah suci anaknya.

김연승 “아버지의 마음”
Kim Hyun seung, “Hati sang Ayah.”



집으로 가는 길 Pelabuhan Hatiku

수인이 전 남편인 성태가 오기 전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 타국에 가려고 합니다. 현수에게 말하고 일을 그만 두고 떠나야 하는데 가족일로 힘들어 하는 현수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떠나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수인 아버지가 수인에게

“어차피 그만 둘 것 시간 질질 끌지마” 라고 합니다.



Jangan mengulur waktu, karena kau pasti akan berhenti bekerja, kan?

Jangan 은 여러분이 아는바 같이 “~ 하지 마라” 라는 금지문 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 번 반복하게 되면,

* **Jangan-jangan (Barangkali, mungkin saja)~** 일지도 모른다(추측). 형편에 따라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 *Jangan-jangan dialah pencurinya.*

그가 도둑 일지도 몰라.

Jangan-jangan dompetku tertinggal di kantin.

매점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

Mengulur waktu : **Mengulur** 어근은 **Ulur** 로 잡이 늘이다 및 노예, 밧줄을 풀다, 양보 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Waktu(시간)**과 같이 사용되면서 시간을(억지로) 늘이다, 연장하다 의 뜻을 나타냅니다. 본 대화의 시간을 **질질 끌다** (억지로 끌다, 잡아가다) 라는 표현에 사용됩니다.

-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을 Jam karet /tukang ngaret(Karet)
Karet은 고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고무의 특성은 신축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두 숙어 다 고무처럼 시간을 질질 늘인다는 뜻의 숙어로 사용 됩니다.

Tip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학교, 학원 에서 혹은 책으로 인도네시아어를 배웁니다.
8년 전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중급 인도네시아어까지는 배우고 왔다고 생각 했는데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못
알아 듣는 단어가 꽤나 많았습니다. 몇 일 전 현지방송에서 사회자와 게스트가 사용하는 말 몇 마디 메모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도네시아어로 고쳐봤습니다.

방송에 나온 구어체 바른 인도네시아어



| | |
|---------------------------|--|
| “Ya deh” | OK 또는 Baiklah. 알았어 또는 좋아. |
| “Gue belum bikin PR nih.” | Saya belum mengerjakan PR. 아직 숙제 안 했는데요 . |
| “Yang kayak gitu tuh” | Yang seperti itu. (Tidak disukai orang lain) 그런점은(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
| “Baru tahu rasa, lo” | Rasakan akhibatnya. 이제 알겠지?(당해봐야 알지?) (누누히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 어떠한 일이 발생 했을 때 사용) |
| “Susah amet ngomongnya” | Susah sekali kau bicara. 당신 말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횡설 수설 하거나 말을 요지가 없을 때) |
| “Gimana Sih, lo” | Bagaimana kau ini? 너 어떻게 할래? |
| “Gua ngadepin biasa aja” | Aku biasa saja menghadapinya. 이미 적응됐어. |



루피아·자카르타 증시 강세

<스탠다드차터 은행 수석 부회장 Fauzi Ichsan>

2008년 말 큰 폭으로 하락한 루피아의 가치가 '09년 1/4분기에 들어서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직전 1개월 동안 루피아는 11.2% 평가절상 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의 모든 개도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13,000루피아 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던 외환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경제지표 및 환율이 이렇게 빨리 회복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서의 환율변동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인니 시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투침을 중심으로 한 매수에 힘입어 증권시장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초 1,437포인트였던 자카르타종합지수는 3월 1,256포인트까지 추락했다가 4월 들어 1,634포인트로 반등했다. 지수는 1월 대비 27.4% 상승했고 이와 같은 지수 상승은 아시아 지역 1위, 세계 6위의 기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최근 발행된 국제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5년 만기 국채를 통해 6억5,000만 달러를 조달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7배나 많은 47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자율이 지난 2월 발행된 국채보다 1.2% 인하된 8.8%라는 점에서 본다면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9개월 가량의 침체 후 찾아온 인니 경제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세계 정상들은 G-20 회의를 통해 IMF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통해 협력하여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기로 합의했다. 투자자들은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G-20 국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급변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그들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지만 그 방향이 정확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또한 투자자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정책대 정책과 은행개혁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인니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세계 경제는 점차 좋아져 2010년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2008년도 보다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sign은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통상 실물경제보다 6~9개월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현물시장과 채권시장으로 향했던 hot money가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우지수 역시 15%이상 상승했으며 이러한 미국 증시의 활황은 세계 증시의 활황을 의미한다. 유럽과 아시아, 인니도 다름 없다.

또 다른 큰 요인은 지역적인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인도, 인니는 예외적인 국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들 나라는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작다.

| 국가별경제성장률 | 2008 | 2009(예상) |
|----------|------|----------|
| 중국 | 9.0% | 6.8% |
| 인도 | 6.3% | 5.0% |
| 인니 | 6.1% | 4.0% |
| 싱가폴 | 1.1% | -3.9% |
| 말련 | 4.6% | -0.8% |
| 태국 | 2.6% | -3.5% |

※ 스탠다드차터 은행

인니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싱가포르, 말련, 태국과 비교해 좋은 수준이다.

더욱이 정치문제로 인해 태국의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태국 이외의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인니는 이들 자본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문제이다. 선거 관리상 문제가 있었지만 인니의 총선은 순조롭게 끝났다. 이로서 인니는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안전관리 제고 (提高) 방안

회사생활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이다. 작든 크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거니와 개인적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금전적 환산이 불가할 정도로 크다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질서에 대한 개념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현장의 안전사고 노출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비근한 예로써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 수리를 시도한다든지 위험한 설비 사이로 왕래를 한다든지, 기본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을 실시한다든지 일반 상식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바빠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누구의 잘못을 떠나 이미 사고는 발생을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사원의 몫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사건처리 및 마무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한 것만큼은 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있어 사전 예방조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전관련 사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관련 예방조치 및 위험요소 개선을 통해 무재해 작업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안전관리 제고방안 및 관련 규정, 법규를 살펴봄으로써 무재해 작업장 실현해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 안전관리 제고 방안

1. 안전의식 제고: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원의 안전 mind라 할 수 있다. 즉, 사원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안전보호구 착용 및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규모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안전의식 제고관련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1) 안전 교육 실시:

- 신입사원 교육 또는 정기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함.

2) 사원 공유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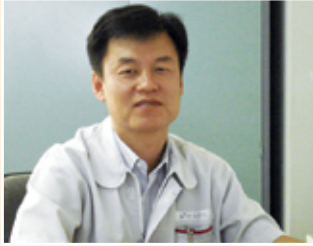
- 사원 조회시 피해사례 및 안전지침 교육

3) 업무 시작전 안전 조회 실시:

- 업무 시작시 또는 근무조 교대시 서로 안전관련 지적을 함으로써 안전관련 중요성을 주지시킴.

2.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노동법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위험한 작업장의 경우 50인 미만일 경우에도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의 의무 규정을 떠나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조직을 회사 규모에 맞게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역시 Top의 Mind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각 회사의 법인장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안전관리 조직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3. 정기 순찰 및 개선

상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원대표(또는 노동조합 간부)를 함께 참여 시킬 경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즉, 사원대표 스스로가 안전관련 환경 및 사원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 안전관리 실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안전관리 위원회는 정기적 현장 순찰을 통해 현장 진단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사원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회사에 안전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4. 정기 진단 및 개선

한국에 본사가 있을 경우 본사로 부터의 정기적 안전 진단 실시 또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다.

II.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규정(사례)

1. 법적근거(DASAR HUKUM)

1) 안전관련 '70년 법령 1호

(UU No.1 / 1970 tentang Keselamatan Kerja).

2) 안전관리위원회 설립관련 '70년 노동부 장관령 2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No.02 tahun 1970 tentang Pembentukan P2K3).

3) 안전관리 및 보건관련 '96년 장관령 5호

(Peraturan Menteri PER/05/MEN/96) tentang Sistem Manajeme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4) 단체협약(Kesepakatan Kerja Bersama).

2. 목적(TUJUAN)

- 1) 작업안전/보건 확보 및 보장.
- 2) 안전사고 및 업무관련 질병 절감을 위한 작업안전 및 보건 관리/ 실행을 원활히 함.
- 3)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한 작업장 구현
- 4) 작업안전 및 보건 지침서

3. 적용범위(RUANG LINGKUP)

- 1) 본 규정은 사내에서 적용됨.
- 2) 본 규정은 전 사원 및 용역업체/협력업체 사원에도 적용됨.

4. 정의(DEFENISI)

- 1) 안전관리위원회(Panitia Pembina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P2K3)란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작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사내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 2) 작업안전 및 보건(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이란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3) 안전사고(Kecelakaan)란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얘기치 않은 사건을 말한다.
- 4) 주변환경(Lingkungan)이란 공장 주변의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기, 물, 토지, 천연자원, 식물, 동물, 사람 등이 포함된다.

5. 책임(TANGGUNG JAWAB).

- 1) PT._____의 법인장(Presiden Direktur)은 안전관리 위원회(P2K) 규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 인사부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행을 총괄한다.
- 3) 현업 부서장은 안전관리 실행에 책임을 진다.

6. 안전관리 위원회 책임 및 기능 (TUGAS DAN FUNGSI P2K3)

- 1) 작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회사에 건의하는 기구.
- 2) 작업장의 작업안전 및 보건관련 데이터 관리 및 문제점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기능.
- 3) 작업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 감독, 교육 및 조사 업무.
- 4)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5) 근로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원 인식 개선 노력.

7. 시행 절차(PROSEDUR PELAKSANAAN)

1) 평가 (Evaluasi)

안전관리위원회는 위험 요소 파악을 위해 안전사고 요소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1. 자재 및 생산 공정
2. 기계 및 설비
3. 작업 방법
4. 안전보호구

2) 안전사고 분석 (Analisa Kecelakaan)

안전관리위원회는 모든 안전사고를 심층 분석하여 근본원인 및 기타 원인을 파악한다. 아울러 동일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법을 찾는다.

3) 안전사고 통계 (Statistik Kecelakaan)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사고 통계를 관리한다.

4) 회의 (Sidang – siding)

안전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조직을 포함한 근로안전 및 보건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 안건

1. 근로안전 사항 평가 결과 협의.
2. 위험요소 개선방법 건의.
3. 안전사고 분석 결과 협의.
4.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5. 교육, 훈련, 강연 등의 안전활동 계획 수립.
6. 기존 프로그램 개선.
7. 근로안전 및 보건 증진 경진대회 계획 및 시행
8. 활동계획 수립.

5) 교육 및 훈련 (Pendidikan dan Latihan)

근로안전 및 보건관련 사원의 의식강화를 위해 작업 안전 및 보건, 안전사고 예방법 및 기타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응급조치법(Pendidikan tentang Pertolongan Pertama Pada Kecelakaan)
2. 소방훈련(Latihan Penanggulangan Kebakaran)
3. 신규 설비 및 프로세스 교육(Pendidikan tentang cara kerja proses dan alat-alat baru)

6) 건의 (Rekomendasi)

안전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사에 건의한다.

1. 잠재해해 요소(위험 상태, 위험 행동 등)
2. 위험 상태 및 위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안전사고, 생산 공정, 기계 고장, 재물 손상 등)
3. 실용적, 경제적, 효율적 개선 방법.

7) 보고 (Pelaporan)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사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에 안전관련 사항을 보고한다.

8) 관계기관과의 협력

(Koordinasi dengan instansi Pemerintah & instansi terkait)
근로안전 및 보건관련 지방정부 및 노동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8. 관련근거 (REFERENSI)

1) 안전관리위원회 지침서

(Modul umum Pembinaan Operasional P2K3)

2)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노동법.

III. 안전관리 위원회 시행규정(노동법)

1. 법적 근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조직, 임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0년 법령 1호 10조 (1),(2)항 이며 아래와 같은 시행령이 있음.

- 1) 국가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지역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125호 (82년) ▶ 보완 규정 노동부 장관령 155호(84년)
- 2) 안전보건관리위원회 및 작업안전전문요원 임명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4호(87년)

2. 설립 조건:

- 1) 일정자격 요건의 모든 작업장에 대해 사업자 또는 집행부는 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일정 자격 요건
- 작업자 50인 이상
- 매우 위험한 사업의 50인 미만 사업장
- 2) 안전보건관리위원회는 사업자에 의해 설립되며 노동부 장관 또는 정부 임명 공무원에 의해 승인된다.

3. 안전보건관리위원 자격 요건

- 1) 사업자 및 사원대표로 구성됨.(위원장,총무,회원으로 구성)
- 2) 총무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련 전문가 또는 안전보건 담당자로 임명됨.
- 3)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경영진으로 임명됨.
- 4)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인원 및 조직은 아래와 같다:
*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소 12명이며 6명은 회사 대표 6명은 사원대표로 구성.
* 1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소 6명이며 회사 대표 3명 사원대표 3명



4. 설립 절차

1) 준비 단계

* 회사

- 작업안전보건 정책: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Safety and Health Policy” 수립
- # 작업안전 보건은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임.
- # 경영진은 작업안전 보건 실행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 # 전계층 사원은 작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참여한다.
- # 작업안전보건 관련 계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 작업안전보건 관련 모든 규정 실행에 대한 감독
- # 예산 마련
- # 작업안전보건 Coordinator인 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사항
- 작업안전 보건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 모든 전원 공유하여야 함.
- 안전보건위원회 후보 구성
- # 후보 구성 및 최종 위원을 선정함.
- # 위원회 구성후 위원 소집 및 회사 안전보건 정책을 설명함.
- 지역 노동부와 협의
- 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 회사는 해당지역 노동부와 세부 실행 사항 및 안내 등을 위해 협의 할 수 있다.

* 정부

- 회사목록 작성
- 해당지역 노동부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 회사의 명단을 작성한다.
- 회사에 대한 설명회
- # 해당회사에 안전보건위원회 설립 의무를 통보함.(설립 배경 등)
- # 서류를 통한 설명 또는 몇 개의 회사를 모아서 설명회 가능함.

2) 실행 단계

* 회사

- 안전보건위원회 설립
- 위원회 후보 구성 및 최종 위원 확정 후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안전보건위원으로 임명함.
- 해당지역 노동부 신고
- 경영진은 정식적으로 위원회 설립 후 이를 해당지역 노동부에 신고함. 설립 신고와 더불어 노동부 승인을 요청함.

* 정부

- 안전보건 위원회 승인서 발급
- 해당지역 노동부에서는 승인요청 접수 후 주정부 노동부에 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승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

- 임명식

상기 승인서 발급 후 주정부 노동부 소장 또는 주 정부 관료에 의해 안전보건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수행함.(몇 개 회사를 동시에 실시)

5. 조직구조

1) 조직형태 및 집행부

회사 사업 종류, 크기, 형태 및 기타 회사 여건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집행부는 통상 1명 위원장, 부위원장, 1명 또는 이상의 총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자 및 사원대표로 구성된다.

- * 위원장은 회사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경영진에서 임명된다.
- * 총무는 안전보건 전문가/담당자 또는 안전보건 담당 후보로써 임명된다.
- * 안전보건 위원은 안전보건에 대해 이해하는 사원 대표로 구성된다.

2) 안전보건위원회 집행부의 임무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일반 위원들의 임무는 아래와 같은 “job description”을 통해 명백히 설명 되어져야 한다.

*위원장:

- 모든 안전보건위원회 총회 주관 또는 총회 주관자 임명
- 안전보건위원회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정책 및 단계 결정
- 회사대표로서 노동부에 안전보건 실행관련 책임
- “이사”에게 안전보건관련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짐
- 사내 안전보건 실행 평가 및 monitoring

* 부위원장

위원장 공식시 위원장을 대리함.

* 총무

- 회의 참석 통보서 및 회의록 작성
- 안전보건위원회 행정관리
- 안전보건 관련 데이터 기록
- 안전보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하부 계에 대한 지원
-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련 보고서 작성 제출

* 위원

- 위원회 각 개별 프로그램 실행
- 위원장에게 실적 보고

6. 안전보건위원회의 임무와 기능

안전보건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사업자에게 작업안전 보건 관련 문제점에 대해 개선점을 건의 하는 것임.

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은 안전보건관련 모든 데이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터, 문제점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안전보건 홍보, 감독, 실습, 조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임.

7. 업무 및 보고서

1) 사업 프로그램

안전보건 실행 초기에 안전보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문제 정의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 및 직업병 근원을 파악 및 집계한다.
- 생산성 효율 및 향상을 위해 안전사고 발생 예방 관련 문제
- 안전보건법 수행 상의 문제
- 회사 주변 거주자들에게 안전 및 안정감 보장관련 문제

* 교육훈련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 청취, 이해, 고민하여 작업안전, 보건, 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특강, 토론, 영화, 슬라이드, 게시판, 잡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내외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하다.

* 회의

안전보건위원회는 조직관련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위원회 사업계획과 연계한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의 소집이 가능하다.

회의시 토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 평가/검토 결과
- 발견된 잠정 위험요소 극복 방법에 대한 건의사항 정리
- 안전사고 분석결과 및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사항
- 교육/훈련/특강 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선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 안전보건 위원회 회의시 회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원을 참석 시킬 수 있다.(보다 폭 넓은 회의 내용 공유 및 참석자들로 부터의 Feed back 청취 가능)

* 건의

건의사항 작성시 아래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잠정적 위험 요소(위험요소 및 위험 행동)
- 상기 잠정적 위험요소로 부터 초래 될 수 있는 작업자, 생산, 기계고장, 환경에 대한 사고



- 실질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대처 방안

본 건의사항은 회사대표에게 제시되며 건의사항 수용 후 회사대표는 결정사항을 상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에게 하달한다. 예를 들자면 생산부서, 작업안전 부서장, 보건부서장. 건의사항의 거절시 위원회는 거절 사유 확보 및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건의서는 파일을 하여 보관한다.

* 감사

감사는 전문적 감사팀에 의해 세부적, 정기적으로 일정조직의 안전보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으로써 감사결과는 경영진이 안전보건관련 정책 및 방향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된다.

상기 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사는 아래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 감사 시행은 조직 최고책임자로 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 감사 제도에 대한 목표, 범위, 방법 등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전 관련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 감사위원은 지식, 경험, 감사실시 부서 등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 감사 보고서 완료 및 보고 시기가 명기되어야 한다.
- 감사 보고서 검토는 반드시 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건의서 준비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함임.
- 업무 및 필수 변경 사항에 대한 시행 여부 점검을 위한 Monitoring 제도가 있어야 한다.
-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 관련자가 공유하여야 하며 노동부 소장, 주정부 노동부, 노동부 BPNKK 이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감사 요소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여건에 따른다.

MOVIES

사랑을 부르는, 파리(Paris)



물랑 루즈에서 메인댄서로 일하는 피에르(로망 뒤리스)는 누나와 세 아이와 함께 에펠탑이 바라다 보이는 파리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다. 언젠가 심장병으로 자신이 죽을 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는 우연히 베란다에서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 래티시아(멜라니 로렌)를 지켜보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젊은 남자친구와 중년의 대학교수 롤랭(페브리스 루치니)이 있다.

한편, 엘리즈(줄리엣 비노쉬)는 메닐몽탕의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하는 주인 장을 알게 되고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장의 친구 프랭키(길스 레로쉬)는 카페에서 일하는 캐롤린을 좋아하지만 터프하고 장난스러운 태도 때문에 매번 그녀에게 상처만 준다.

파리는 사랑으로 넘쳐나고 파리의 가을도 깊어갈 때 자유분방한 사랑을 쫓는 래티시아는 롤랭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는데...

김씨표류기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Who Are YOU?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나 한강의 밤섬에 불시착한 남자.

죽는 것도 쉽지 않자 일단 섬에서 살아보기로 한다.

모래사장에 쓴 HELP가 HELLO로 바뀌고 무인도 야생의 삶도 살아볼 만하다고 느낄 무렵. 익명의 쪽지가 담긴 와인병을 발견하고 그의 삶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설레기 시작한다.

그가 신호를 보냅니다. HELLO!

자신의 좁고 어두운 방이 온 지구이자 세상인 여자.

홈피 관리, 하루 만보 달리기... 그녀만의 생활리듬도 있다.

유일한 취미인 달사진 찍기에 열중하던 어느 날.

저 멀리 한강의 섬에서 낯선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리플을 달아주기로 하는 그녀. 3년 만에 자신의 방을 벗어나 그를 향해 달려간다.

그와 그녀의 도심 표류기





진화하는 결혼 - 스테파니 쿤츠

《워싱턴 포스트》가 ‘올해 최고의 책’ 중의 한 권으로 선정한 책

“미국의 저술가 메리니아 관햄과 퍼디난드 룬드버그는 1947년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현대여성: 잃어버린 성”에서 커리어우먼들이 남편들을 상징적으로 거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또한 여성주의가 심각한 질병이며, 남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현대 여성들의 신경증적인 욕망이 이 병의 원인이고, 이 병이 가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까지 미국 42개주가 흑인, 몽골인, 힌두교도, 인도인, 일본인, 중국인, 말레이인, 필리핀인 등과 백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타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 시작, 그러나 미국남부에서는 1965년까지도 그 법이 유효했다.”

세쌍의 부부중 한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요즘, 미래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잘못된 데이터들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도록 도와준다. 우선 우리가 흔히 결혼하면 떠오르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지며 가능하면 남자가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결혼상은 사실

빅토리아 시대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결혼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결혼의 목적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돈을 얻고, 정치적 이점이나 경제적 이점을 얻는 것이었다. 결혼을 감정적 욕구와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개인적 관계로 보게 된 것은 겨우 지난 2백 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오랫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밖에 없게 만

**과거 규칙들 대신
사랑, 존중, 협상**

들었던 가장 큰 요인은 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고, 가정생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의존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은 법적인 자율권을 획득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도 자급자족을 향해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다리지 않아도 되는 셔츠나 금방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식기세척기처럼 노동력을 절약해주는 물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남성들도 예전처럼 여성들에게 집안일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까지 결혼은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다. 오늘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는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만들었던 경제적 조건과 법 규정들이 대부분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는 모두 결혼생활에서 여전히 여성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습관과 정서적 기대를 윗세대에게서 물려받았

다. 이렇게 엇갈린 남녀의 기대로 인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많은 결혼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압력과 강박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남녀가 먼저 친구로 관계를 시작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제는 파트너에게 미리 정해진 사회적 역할이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파트너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 수 없다.

과거의 딱딱한 규칙들 대신 “사랑, 존중, 협상”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협상만으로는 모든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 남녀 모두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할 때 이미 많은 인생 경험, 관심사, 기술등을 갖고 있다. 이제는 두 사람의 관심사와 신념을 모두 하나로 융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사람의 성인이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의식없이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 상대의 차이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진정한 우정과 존경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문화권에서 결혼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책임, 정절, 친밀함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부부 각자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정해진 규칙이 없을지 몰라도, 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동의 기대와 행동 규범이 확실성과 안정성을 높여주고, 순탄한 결혼생활을 도와줄 것이다.

인건비 절감,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와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27.7%가 최근 3년간 보유기술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88.9%가 대처곤란 등의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인뉴스는 기술유출 방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5

제 4 장 인니에서의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3. 지적재산권 침해

□ 지적재산권 출원 요건

1) 특허권(특허법, 2001년 법률 제14호)

○ 신규성

- 출원일 혹은 우선권 일자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국내외 출판물상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을 것
- 국내에서 공개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을 것
- 동일한 발명이 타인이 출원하여 당해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 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을 것

○ 창조성

- 발명이 그 기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창조성을 포함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실용성

- 발명이 신청서에 기술된 것 같이 산업에 실행될 수 있어야 함

(등록 제외조항)

- 출원한 발명이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서의 전시한 경우
 - 발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경우
- 만일 출원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타인이 관련 발명의 기밀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등록 제외조항>

-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률, 종교윤리, 공익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인간 및 동물에 적용되는 검사, 치료, 투약 및 수술과 관련된 경우
-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이론 및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그리고 동식물 제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공정과 관련된 경우

2) 단순특허권(Paten Sederhana, 실용신안)

○ 신규성

- 출원일 혹은 우선권 일자 이전에 동일한 발명이 국내외 출판물상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을 것
- 국내에서 공개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을 것
- 동일한 발명이 타인이 출원하여 당해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 문서중에 기재되지 않을 것

○ 실용성

- 발명이 신청서에 기술된 것 같이 산업에 실행될 수 있어야 함

※ 단순특허권(Paten Sederhana)

- 실용신안과 비슷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과는 별도로 실용신안법이 있어서 실용신안을 보호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특허법 내에 간단하게 단순특허에 대하여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다양한 부족사회의 전통기술을 단순특허로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힘입어 최근 들어 단순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특허의 등록대상이 물건과 물건을 만드는 방법인데 반해, 단순특허의 등록대상은 물건 혹은 도구에 한함

3) 디자인권(디자인법, 2000년 법률 제31호)

-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신문, 방송, 출판물 등에 미공개되어야 함
- 출원일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을 것

(등록 제외조항)

- 출원한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미공개된 디자인으로 간주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전람회에서 공개한 경우
 - 디자인 창작자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교육,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등록 제외조항)

- 인도네시아의 법률, 공공질서, 종교 혹은 윤리에 반하는

경우 디자인권이 부여되지 않음

4) 상표권(상표법, 2001년 법률 제15호)

- 인도네시아의 법률, 미풍양속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의 상표
- 기 등록된 상표와 다른 상표
- 공인된 표시나 오랫동안 일반에게 알려진 표시가 아닌 상표
-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표시가 아닌 상표
- 유명인의 이름, 사진 혹은 제3자 소유 법인명과 유사하지 않은 상표
- 국가 및 국제기관의 이름, 약자, 상징물 등과 유사하지 않은 상표
- 국가 및 국가기관의 공식명칭, 인장과 유사하지 않은 상표

□ 지적재산권 출원 서류

1) 특허권

○ 신청서

- 특허출원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특허서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소정의 특허출원서 양식을 기재하여 출원해야 함
-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 시에는 본국에서 출원한 특허 서류와 본국의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출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특허출원 연월일, 출원자의 성명, 주소, 국적, 발명자의 성명 및 국적, 위임출원 시에는 변리사의 성명, 주소 및 위임장, 발명의 명칭, 도면, 해당 기술분야, 특허 청구 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가능하면 발명품 샘플을 제출

○ 설명서

- 설명서에는 발명의 제목, 발명 기술분야, 발명 배경, 발명 개요, 도면 및 발명 상세설명을 기재함
- 발명의 제목은 반드시 물건 혹은 제조방법을 기재하며, 물건의 성질, 광고성 제목 혹은 물건 자체의 이름을 발명의 제목으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발명 기술분야는 발명 제목에 맞추어 국제 특허 등급에 따라 기재함
- 발명 배경은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 발명을 설명하고 이 발명의 문제점을 설명하여 특허 출원하는 발명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설명함
- 발명 개요는 발명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며, 기존 최종 발명의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특허 청구사항 중에 제일 우선적인 사항을 기재해도 무방함
- 도면 요약서는 ‘도면 별로 제1도면은 발명의 입체도, 제2도면은 발명의 평면도, 제3도면은 발명의 측면도, 제4도면은 발명의 단면도이다’ 라는 식으로 기재하며, 기존 최종 발명에 관한 도면의 요약서 기재는 심사에도움이 되므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명 상세설명에는 출원하는 발명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함. 사용하는 용어, 규격 단위 및 표시 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규격 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단위를 사용해야 함
- 발명에 대한 도면은 특허를 청구하는 발명에 대한 도면만을 제출하며, 특허를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도면 제출은 불필요함
- * 도면은 규격이 없는 기술 도면이어야 하며, 부위표시는 숫자 혹은 글자로 함
- * 도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문장 표시를 금하며, 도표, 공정표, 도형 등은 도면으로 간주함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 88만원 세대의 희망찾기

저자 조성주 | 출판사 시대의창

아직 고등학생이고 곧 대학입시를 치르고 20대가 될 예정인 평범한 한 청년이 있다. 그러나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해도 현재 대학등록금은 연간 1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가 2009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고 하루 8시간씩 312일을 일해야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운 좋게 학자금 용자를 받아서 졸업을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비정규직으로라도 급하게, 이른바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이 과연 현재 20대 젊은이 소수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IMF시대에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란 지금의 20대 중후반들은 100만명 청년실업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의 20대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대학등록금’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본문은 ‘절망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름 붙인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대학등록금’에서 시작해서 ‘청년실업’ 그리고 ‘20대 탈정치화’라는 오해와 편견을 하나씩 짚어본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욱 깊어진 인연, 인도네시아 문화의 여정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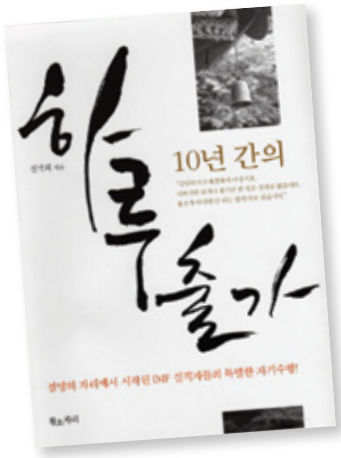
인니 문화연구회 리더 사공경씨가 4년전 한인회 문화탐방을 운영하면서 펴낸 '인니문화산책 -1'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에 이어 올 3월 그 두 번째 시간인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를 펴냈다.

저자는 보고르 Bogor, 뽀작 Puncak, 반둥 Bandung, 짜위데이 Ciwidey, 가룻 Garut, 짜르본 Cirebon, 꾸닝안 Kuningan, 온러스트 Onrust 등 자카르타를 넘어 좀 더 인간냄새와 자연의 향취가 배어나오는 지방으로 향했고 그 애정과 정열의 깊이를 물씬 풍겨냈다.



저자 사공경 | 신국판 | 451쪽

구입처 : 무궁화 슈퍼, 뉴서울 슈퍼, 한국관, 한인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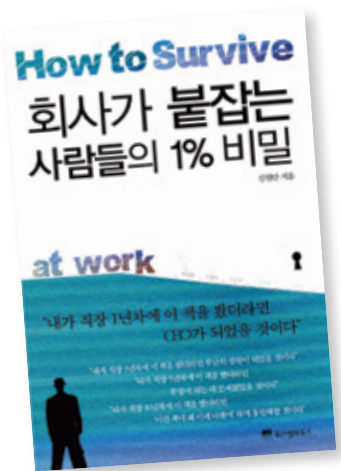


10년 간의 하루 출가

저자 정석희 | 출판사 황소자리

이 책은 저자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하루 출가>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부족하고 서툰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들려준 법문을 모은 것이다. 특히 IMF 실직자들이 10년간 100여 회에 걸친 사찰 순례 여행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을 뿐 아니라, 순박하지만 아름답게 삶을 가꾸은 자기 수행의 기록이기도 하다.

불법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일상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 속에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준다. 또한 우리나라 사찰들의 계절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풍경도 생생하게 소개하여 고단한 삶에 지친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심어주고 있다. 저자와 <나를 찾아 떠나는 하루 출가>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평화와 행복을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회사가 붙잡는 사람들의 1% 비밀

저자 신현만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이 책에는 직장 생존 노하우가 담겨 있다. 회사가 붙잡는 인재가 되고 싶은가? 상사가 인정하는 사원, 또는 부하 직원이 따르는 상사가 되고 싶은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고 승진해서 임원이 되고 싶은가? 좋은 보직을 받고 고액 연봉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회사의 운영원리와 원칙부터 파악하고, 이해하고, 지키고, 따라야 한다.

현대모비스 박정인 전 회장의 사무실에 의자가 없었던 이유, 국내 대기업들이 면접 전형을 바꾸고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 비율을 대폭 낮춘 이유, 글로벌 기업(P&G, 페덱스, 사우스웨스트항공...)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충성도에 맞춰진 까닭 등 실제 사례를 풀이한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직장의 생존 법칙, 프로들의 성공 노하우를 정리하였다. 조직생활의 원리와 실상을 생생히 전달한다.



다른 남자

저자 베른하르트 술링크 | 역자 김재혁 | 출판사 이레

<다른 남자>는 아내의 옛 애인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깨달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집은 연민, 어긋남, 질투, 이기적인 열정, 근원적인 그리움, 낯설음 등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등장하는 상황과 시대적 배경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이 책의 독일어 원제는 '사랑의 도피(Liebesfluchten)'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제목처럼 사랑으로부터 도피를 하고 또 사랑을 향해 도피를 한다.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 인니 무역부, 아세안 정상회의 연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평가

아세안 +3 정상회의는 연기되었지만 이미 여러 현안들이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의 교역이 방해 받지 않을 것이다.

Gusmardi 인니 무역부 국제교역총국장은 아세안이 일본, 한국, 인도와 경제분야 주요 합의를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고,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의 개최 하루전 장관급 회의를 통해 의약품 분야의 상품생산에 대한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 협정은 완전한 자유화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그 시행을 2010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세안 +3 정상회의는 4.11~12 태국의 파타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태국정부

는 연기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 총국장은 본 회의의 연기가 아세안 지역의 교역에 그리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이 이미 아세안 상품교역 협정(Atiga), 아세안 투자협정(ACIA) 그리고 7차 서비스 교역 프레임워크(AFAS-7)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경제및금융개발 연구소의 경제전문가 Ichsan Modjo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기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며, 이전 합의된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chsan씨는 정상회의의 모든 참가국들이 반보호주의를 지향하고 1,200억 달러의 외환을 준비하기로 합의했으며, 정상회의 자체는 각국 정상들이 이에 서명하는 기념식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 SBY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에 자신감 표현

SBY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몇몇 비판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과 달리 2009년 4.6%~4.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BY 대통령은 3~4월 쌀 가격 등 주요 소비품목 가격이 인하된 것에 주목하고, 현재 인니 경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SBY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 인니 정부, G-20 회의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인니 정부는 런던 G-20 회의의 결과인 5조 달러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결정으로 인해 2010년 세계 경제가 2.2%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Anggito 재무부 재정정책 총국장은 G-20 회의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

속했다고 밝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계 경제는 2009년 1% 마이너스 성장 후 2010년에 2.2%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미국 금융권의 부실자산 정리
2. G-20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책 시행 (2조 달러)
3. 무역 금융지원 및 국제은행들의 자본 확충 (1.1조 달러)
 - IMF 출연금 확대 : 7,500억 달러
 - 무역금융 지원 : 2,500억 달러
 - 기타 국제은행 자본 확충 : 1,000억 달러 (아시아 개발은행 자본 200% 확충 포함)

또한 G-20 회의는 국제 은행들이 경제위기 기간 동안 높은 이자 및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G-20 회의 후 IMF 신시대 열리는가?

G-20 회의가 세계 금융구조에 약간의 발전을 이룩해 내며 막을 내렸다.

Gordon Brown 영국 총리는 워싱턴의 시대가 끝나고 런던 회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으나 결과적으로 각국 정상들은 IMF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IMF는 금융시장의 감독과 친 시장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비판 받아왔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금번 G-20 회의는 IMF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주기로 합의했다.

IMF가 각 국가들에게 유동성을 지급해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다.

런던 G-20 회의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IMF를 개혁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겨놓았다.

● SBY 대통령, 금융위기가 또 온다면 Non-IMF 자금을 선택할 것이라고 언급

SBY 대통령은 향후 어떠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또다시 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BY 대통령은 “인니가 IMF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IMF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나는 인니가 IMF에 의지하고 있지 않

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확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SBY 대통령은 G-20 회의 기간 중에 동 의견을 IMF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는 회의중에 IMF 총재와 만나서 인니가 향후 다른 포맷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10년 전과 같이 IMF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너무 컸다.”

10년 전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는 IMF가 제시한 잘못된 상황판단과 잘못된 해결책으로 인해 쓰디쓴 경험을 해야 했다. 당시 IMF는 인니 경제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SBY 대통령은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이 개혁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국가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SBY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인 자유시장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개방경제를 추구하나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각 지방을 평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SBY 대통령은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원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자유시장체제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지표/경제동향

● 중앙은행, 2009년 경제성장률 3~4%대 유지 예상

Hartadi 중앙은행 부총재는 2009년 경제성장률이 3~4%대에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1/4분기에 4.5~4.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4분기 역시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부총재는 현재 인니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플레이가 우려되거나 심각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인플레이로 인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현재 중앙은행 금리는 7.5%이며, 5월 초 내 부회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 자카르타 중심지역,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2009년 1/4분기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또한 콘도미니엄과 월세 아파트 가격 역시 전분기 대비 60% 이상 하락했다.

Jones Lang Lasalle 부동산의 Anton 부동산 전문가는 2009년 1/4분기의 부동산 거래량이 700건으로 전분기 1,500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중 월세 아파트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어 121건에 불과했다.

중심 상업지역(golden triangle) 사무실 거래량도 26% 하락했다. 하지만 동 지역 이외의 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B Simatupang 지역의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오히려 100% 이상 증가했다.

Andreas 인니 쇼퍼센터협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까지 회사들이 겪고 있는 자금부족과 은행권 대출의 어려움에 기인하며, 선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거가 진행중이나 구매자들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협회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격할인이나 인센티브 제공등을 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광물자원부, 5월 중 석유 및 가스 24개 공구 공개 입찰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금년 5월 중 24개 지역에 대한 석유 및 가스개발 입찰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부처는 개발예정 24개 지역이 주로 인니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7개 광구는 일반입찰, 7개 광구는 직접제안을 통해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일반입찰 17개 광구

Tomini Bay I ~ VII, North Bone, Bone Bay I ~ VI, Menui, Morowali, Sula I, II, Bird's Head

- 직접제안 7개 광구

Kubu, North East Ogan Komering, Offshore West Java, Blora, North Makassar, East Simenggaris, Digul

● 환경부, 인니 지열발전 가능성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

환경부의 Dana 에너지 전문가는 인니 지열발전 가능성은 33GW 규모로 세계 최고이나 현재 1GW 만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 전문가는 인니가 아직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 단계에 있는 소규모 도시들이 또다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대체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을 깨달아 친 환경적인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니, 기준금리를 7.5%로 추가 인하

인니의 3월 인플레이션이 0.22%에 그쳐 2009.1~3월 누적 인플레이션이 0.36%를 기록하고 달러당 루피아 환율 역시 11,500루피아 이하로 2주 이상 강세를 보이자 4.3 인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7.5%로 결정했다.

현재의 기준금리 7.5%는 인니 역사상 최저치이다.

Mirza 만다리은행 수석 경제분석가는 기준금리가 7.25% 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장기적으로는 6.2%까지 하향 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과 같은 저 인플레이션은 4월중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1, 2주 동안 루피아로 환전된 외국환은 총 6조 루피아에 이르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2월 인니 무역수지, 12억달러 흑자 기록

2월 한달 간 인니 무역수지는 수출 70억 달러, 수입 58억 달러로 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 모두 전 달 대비 총액수가 감소했으며 (1월 대비 수출 감소량 1.02%, 수입 감소량 11.89%), 특히 수출의 경우 2008.2월 대비 32%나 감소한 액수이다.

수입의 경우 비석유 부문의 수입액은 50억 달러로 원/부자재 수입 또한 감소했다. 수입자재의 감소로 인한 국내 생산량 감소 및 내수 구매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치분야

● 정당간 연합 윤곽 그려지다

2009년 4월 총선 후 SBY 대통령의 민주당과 Megawati 의장의 투쟁민주당(PDI-P)을 중심으로한 대권을 향한 정당간 연합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국회에서 강력한 야당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쟁민주당(PDI-P)은 신생 하누라당, 그린드라당과 연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골까르당을 비롯한 PKS, PKB 등 중도성향 정당들은 대선 승리가 유력한 민주당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골까르당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총선 결과로 인해 Jusuf Kalla 현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던 전략을 수정했으며, Priyo 골까르당 상임위원장은 골까르당이 내세울 수 있는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SBY 대통령과 Jusuf Kalla 부통령이 계속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골까르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두 번째 안은 골까르당과 연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PKS, PAN, PPP, 하누라, 그린드라 등 중도 정당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동 위원장은 만일 골까르당이 투쟁민주당과 연합한다면 Megawati 의장과 Jusuf Kalla 현 부통령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도성향의 정당들과 연합하게 된다면 Jusuf Kalla 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총선에서 득표율 2위나 3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투쟁민주당의 전략은 그리 다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누라당과 그린드라당은 민주당에 홀로 맞서기 어렵기 때문에 투쟁민주당과 연합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하누라당과 그린드라당의 당수인 Wiranto 대표와 Prabowo 대표는 아직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Prabowo 대표가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Megawati 의장은 모

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 3강 체제가 구축되었지만 투쟁민주당은 골까르당, PPP, PAN과의 연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KS당은 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골까르당의 전략적 위치

이번 총선 Quick Count 결과 골까르당은 민주당에 6% 뒤지는 득표율을 보였다. 골까르당 지도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기로 한 듯하다.

이러한 태도는 Jusuf Kalla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접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Jusuf Kalla 당 대표와 SBY 대통령이 향후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SBY 대통령 역시 골까르당의 위상 및 태도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투쟁민주당(PDI-P)의 Megawati 당대표와 SBY 대통령의 정치적 결합상태는 미약하고 두 정당간의 연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SBY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지도자이고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골까르당과 같이 지지율이 높은 정당과의 연합은 향후 안정적인 정국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일 다른 군소 정당의 지지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골까르당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은 충분히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투쟁민주당이 아닌 골까르당을 선택한다면 투쟁민주당은 Megawati-Prabowo 카드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오는 7.8 대통령 후보등록이 마감될 것이고 이후 후보의 면면은 밝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골까르당과 연합했을 때 누가 골까르당을 대표해서 부통령 후보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SBY 대통령과 Jusuf Kalla 부통령은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선거가 끝나면 총선 및 대선에 대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의

즉각적인 실천을 위해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니가 직면한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더욱 열심히, 현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하겠다.

● Agung Laksono, 골까르당과 민주당 연합 예상

골까르당의 Agung Laksono 부의장은 골까르당이 민주당과의 연합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4.23 예정인 정당회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동 부대표는 골까르 당 내부에 결과와 상관없이 Jusuf Kalla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회의 결과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골까르당의 Idris 인사담당 의원은 골까르당 상임위원회가 민주당과의 연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혹시 있을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dris 의원은 골까르당이 야당이 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확정적인 민주당과의 연합을 선호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 학계, 2009년 총선을 변화를 위한 새로운 물결이라고 평가

아이르랑 대학교의 Daniel 교수는 이번 선거를 변화를 위한 새로운 물결이었다고 평가하고 현재까지 국회 내 소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골까르당 그리고 투쟁민주당이 강세를 보인것은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의 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 교수는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는 3개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당과 연합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동 교수는 만일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두 개 정당에서만 나온다면 인니 정치는 안정을 찾게 될 것이나, 골까르당이 정당간 연합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골까르 당 내의 정치 엘리트들의 전략에 따라 향후 정세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카르 당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투쟁 민주당이나 SBY 대통령의 민주당, 어느쪽 과도 연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SBY 대통령의 대선에 대한 자신감은 한층 강해졌을 것이다.

● **SBY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

SBY 대통령이 Times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중 한사람으로 선정됐다.

Dino 대통령 대변인은 Times지의 조사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인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동 대변인은 선정 소식을 전해들은 SBY 대통령이 매우 기뻐했으며 본 선정을 통해 세계 속에서의 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관련 사항

● **BBJ(자카르타 선물거래소), 말련, 한국과 협력 추진**

BBJ(PT Bursa Berjangka Jakarta : Jakarta 선물거래소)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훌륭한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한국과 향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BJ의 Hasan Jein 대표이사는 이미 Singapore Commodity Exchange(Sicom)의 담당자들과 만나 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동 이사는 한국 역시 협력을 위해 BBJ와 접촉을 시작했으며, BBJ는 아직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동 이사는 만일 상기의 협력들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BBJ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많은 투자비용이 들겠지만 확고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싱가폴, 한국과 접촉하기 전, BBJ는 말련, 인도의 현물 거래소와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말련과는 카카오 등에 대해 양국으

로 들어오는 투자의 gateway 역할을 하려 했으나 양국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상이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BBJ는 말련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말련은 시스템의 무상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 **한국 신발회사 이글, 경제위기이지만 해고 없을 것이라고 발표**

이글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PT. GF Indonesia의 OK Kim 대표이사는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인니 내에 있는 5개의 생산공장에 있는 4,0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글은 2009년 인니 도매시장 판매 목표를 2008년 80만족 보다 20% 상향된 100만족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008년 이글은 소매시장에 40만족의 신발을 판매한 바 있다. 이글의 인니 내 수시장 시장 점유율은 7%로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글의 Triharto 영업부장은 2009년부터 공무원 및 군인, 경찰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생산할 것이며 SBY대통령과 Jusuf Kalla 부통령이 공무원들이 국산신발을 신도록 한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9년 초 산업부는 스포츠화 부문 최고 생산품으로 이글 스포츠화를 선정한 바 있다.



국제관련 사항

● **이란, 북한의 로켓 발사 인정**

이란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이란 스스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Hasan Ghashghavi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우주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권리이며 다른 나라 역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AFP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동 외무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프

로그램은 북한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북한의 로켓발사에 이란이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로켓에 실려있는 물체가 지난 2월 이란이 발사한 로켓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세계의 국가들은 북한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 선전용으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들이 단지 평화적인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발사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란은 자국 기술로 만든 Omid(염원)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Omid 위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란의 기술 발전과, 이와 같은 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의 프로그램이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도 완전히 평화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구의 나라들은 이와 같은 이란의 태도를 핵무장을 위한 위장인 것으로 격정하고 있다.

자신을 쳐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줄라 배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 | | |
|----------------|-----|------|
| 한국대사관 | 520 | 1915 |
| 영사과 | 520 | 8950 |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574 |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 522 | 7771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 6525 |

● **긴급전화**

| | |
|----------------|--------------------|
|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 110 |
| 구급차 | 118, 119 |
| 전기고장 및 문의 | 123 |
| 전화고장 및 문의 | 147 |
| 화재 | 113 |
| 수도고장및문의 | 5798 6555/577 2010 |
| TOL 상황 | 801 1735 |
| 열차시간 문의 | 121 |

● **한인단체**

|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 2515 |
| 한국 부인회 | 526 | 0878 |
| 반동 한인회 | 022 | 2041 773 |
| 발리 한인회 | 0361 | 286 248 |
| 보고르 한인회 | 7782 | 8886 |
| 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 | 8690~1 |
| 수까부미 한인회 | 0266 | 736 441 |
| 스마랑 한인회 | 0298 | 522 296 |
| 매단 한인회 | 061 | 453 8669 |
| 족자 한인회 | 0274 | 376 741 |
| 바딤 한인회 | 0778 | 392 014 |
| 보고르 한인회 | 7782 | 886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 110 234 |

● **교민 잡지**

| | | |
|------|------|------|
| 한인뉴스 | 521 | 2515 |
| 교민세계 | | |
| 벼룩시장 | 8983 | 1908 |
| 좋은느낌 | 5290 | 0040 |
| 한울 | 452 | 5655 |
| 여명 | 9955 | 5859 |

● **교육기관**

| | | |
|--------|-----|---------|
| 한국국제학교 | 844 | 4958~61 |
| JIS | 750 | 3640 |
| NJIS | 450 | 7660 |
| BIS | 745 | 1667 |
| 간디국제학교 | 690 | 9902 |

● **유치원**

| | | |
|--------------|------|------|
| 사랑 | 835 | 1540 |
| 성모 | 7884 | 2467 |
| 은혜 | 7098 | 3568 |
| 하나 | 844 | 5283 |
|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 723 | 0807 |
| (글라빠가딩) | 471 | 8047 |
| (땅그랑) | 558 | 4224 |

● **은행**

| | | |
|--------|-----|------|
| 수출입 은행 | 525 | 7261 |
| 외환 은행 | 574 | 1030 |
| 우리 은행 | 515 | 1919 |

● **종교 단체**

기독교

| | | |
|--------------------|------|------|
| 늘푸른 교회 | 766 | 9191 |
| 동부 교회 | 4584 | 3458 |
| 연합 교회 | 720 | 5979 |
| 소망 교회 | 739 | 6487 |
| 순복음 교회 | 739 | 2373 |
| 안디옥 교회 | 765 | 3077 |
| 열린 교회 | 844 | 5537 |
| 위자야 한인교회 | 7279 | 3145 |
|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 420 | 9134 |
| 주님의 교회 | 831 | 3843 |
| 한마음 교회 | 720 | 8014 |
| 한인 성요셉 성당 (찌까랑 공소) | 7884 | 3782 |
| 8911 | 7547 | |

불교

| | | |
|-----------|------|------|
| 조계종 능인정사 | 724 | 7261 |
| 조계종 해인사 | 7030 | 5898 |
| 법연종 법연원 | 720 | 8607 |
| 해인사 인니포교원 | 769 | 5392 |

이슬람

| | | |
|------------|-----|------|
|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 871 | 6906 |
|------------|-----|------|

● **건강식품/건강원**

| | | |
|------------------|------|------|
|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 520 | 7662 |
| 경동 건강원 | 7028 | 4262 |
| 고려 건강원 | 8779 | 8959 |
| 한국 건강원 | 5579 | 6411 |
| 황소 건강원 | 5576 | 7628 |
| 진영 삼봉나와 | 8234 | 565 |
| 솔진생 코리아 | 7278 | 8287 |
| 클로델라 | 470 | 4280 |
| 이름 황성주 생식 | 5296 |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 | | |
|-------------|------|------|
| 글로벌링 | 725 | 1606 |
| 넥스텔링크 | 525 | 3187 |
| 데이콤 | 720 | 7551 |
| 킹폰 | 574 | 0888 |
| 현대 텔레콤 | 5579 | 1226 |
| Hallo Phone | 5290 | 0233 |

● **꽃/화환**

| | | |
|--------|------|----------|
| 꽃과 좋은날 | 0816 | 142 5099 |
| 난 이야기 | 0812 | 913 1355 |
| 에셀 꽃집 | 0816 | 733 810 |

● **노래방**

| | | |
|------------|-----|------|
| 팡팡노래방 & 치킨 | 720 | 7275 |
|------------|-----|------|

● **렌트카/기사클럽**

| | | |
|----------|------|-----------|
| 강남 렌트카 | 081 | 2109 7631 |
| 서울 렌트카 | 6870 | 9335 |
| 우리 렌트카 | 081 | 119 3069 |
| 한성 렌트카 | 889 | 0471 |
| 짱구 기사 클럽 | 7279 | 8233 |

● **미용실/피부관리**

| | | |
|----------|------|------|
| 갤러리 J | 725 | 2856 |
| 국제 이용원 | 739 | 6129 |
| 뷰티 # | 520 | 4428 |
| 스칼렛 | 723 | 5638 |
| 아마란스 화장품 | 723 | 1537 |
| JR SALON | 7279 | 7906 |

| | |
|-----------------------|-------------|
| 컨덤 | 2729 2067~8 |
| Kris Kim | 7279 1555 |
| Hair Perm | 7280 1404 |
| ● 변호사 사무소 | |
| 이승민 법률사무소 | 525 5959 |
| 법무법인 P.Y.L | 527 2422 |
| P.A.K. 변호사 사무실 | 797 6254 |
| ● 부동산 | |
| 그린 부동산 | 726 4949 |
| 2005뉴 밀레니움 | 7082 0056 |
| 리츠 부동산 | 6896 7249 |
| ● 인테리어 | |
| LIVING A & I | 7278 0704 |
| 로만 인테리어 | 720 4851 |
| KEMBAR REJEKI | 527 2245 |
| ● 방송사 | |
| K-TV | 525 2922 |
| OKTN(KBS World) | 797 6151 |
| KABLE VISION | 527 8811 |
| INDOVISION | 581 9988 |
| ● 병원 | |
| 길명근 한의원 | 722 4646 |
| 뉴 월드 메디칼 | 7279 3809 |
| 대한 치과 | 721 1850 |
|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 7280 1819 |
| 실로암 한의원 | 720 1779 |
| 서울 메디칼 클리닉 | 799 1333 |
| 솔 한의원 | 7278 7410 |
| 신농씨 한방병원 | 7278 0563 |
| 아름다운 병원 | 720 7628 |
| 한국병원 | 720 7727 |
| R.S. BUNDA | 322 0005 |
| R.S. GRAHA MEDIKA | 530 0887 |
| RS. MEDISTRA | 521 0200 |
| R.S. M.M.C | 522 5201 |
| R.S. PONDOK INDAH | 765 7525 |
| R.S. Siloam(땅그랑) | 546 0055 |
| R.S. Siloam(찌까랑) | 8990 1911 |
| S.O.S | 750 5973 |
| ● 비디오 | |
| 비디오 서울 | 723 2088 |
| 한양 비디오 | 450 4364 |
| K-마트 비디오 | 688 22040 |
| ● 사진관 | |
| ELGA 포토스튜디오 | 521 0862 |
| ● 슈퍼마켓 | |
| 뉴서울슈퍼 | 725 0520 |
| 뉴부산슈퍼(땅그랑) | 5940 0375 |
| 만나슈퍼(버까지) | 821 8705 |
| 무궁화슈퍼 | 722 2214 |
| 무궁화(땅그랑) | 558 2214 |
| 무궁화(끌라빠가딩) | 453 3624 |
| 무궁화(찌까랑) | 7075 2214 |
| 서울마트(가라와찌) | 546 0844 |
| 서울슈퍼(끌라빠가딩) | 450 4364 |

| | |
|--------------|---------------|
| 우리슈퍼(버까지) | 8240 4575 |
| 월드마트 | 8430 2535 |
| 하나마트 | 8459 0064 |
| 한일마트 | 723 2086 |
| 한일마트(땅그랑) | 5577 8633 |
| G-마(찌부부르) | 8459 9858 |
| K-마트 | 725 2122 |
| 위자야마트 | 726 9049 |
| ● 식당 | |
| 가나 레스토랑 | 252 0077 |
| 가야성 | 725 7373 |
| 가호(세노파티) | 5289 7044 |
| 가호(끌라빠가딩) | 2850 7600 |
| 강나루 | 5576 8222 |
| 강촌 | 5579 3681 |
| 경복궁 | 8990 8822 |
| 고려가든 | (024)321 992 |
| 고목 | 897 3463 |
| 고인돌 | 452 5597 |
| 고주몽 | 7279 6709 |
| 국일관 | 822 8974 |
| 기소야 | 574 7581 |
| 기준 | 250 6532 |
| 뉴 코리아타워 | 3193 0311 |
| 다리아 분식 | 722 0276 |
| 다솔 | 251 2030~1 |
| 대감집 | 726 4356 |
| 대장금 | 551 4311 |
| 돌아온 김삿깃 | 722 2230 |
| 동해복집 | 720 7464 |
| 동해 | 725 2856 |
| 또래오래 치킨(버까지) | 8243 4848 |
| 레드토마토 EX몰 | 315 1033 |
| 뽕독인다 | 7592 0654 |
| 끌라빠가딩 | 4585 4316 |
| 마포 | 7279 2479 |
| 만나 | 821 5279 |
| 만리장성 | 552 1210 |
| 모나리자 | 8990 9570 |
| 물레방아 | 8990 6956 |
| 목우촌 | 450 4155 |
| 미르(맨하튼 호텔) | 5296 1201 |
| 미추홀 | 6583 1472 |
| 버까지 서울 | 8895 7604 |
| 산들 | 5579 5821 |
| 산타코리아 | 722 9921 |
| 상록수 | 8983 6047 |
| 서동(찌부부르) | 8459 9858 |
| 서라벌 | 572 3475 |
| 서울가든 | (0361)768 323 |
| 서울 일식 | 546 0845 |
| 서울 팔레스 | (024)447 414 |
| 소양강 | 897 2231 |
| 송도(리뽕찌까랑) | 8990 1474 |
| 수라청(세노파티) | 527 8721 |
| 수라청(끌라빠가딩) | 4585 1115 |
| 스카이 코리아(공항) | 550 9158 |
| 시티서울 | 5289 7506 |
| 신도시 | 897 3615 |
| 아랑 22 | 7082 0601 |
| 아랑갈비 | 8983 6047 |
| 아랑/스시 코리아 | 453 1679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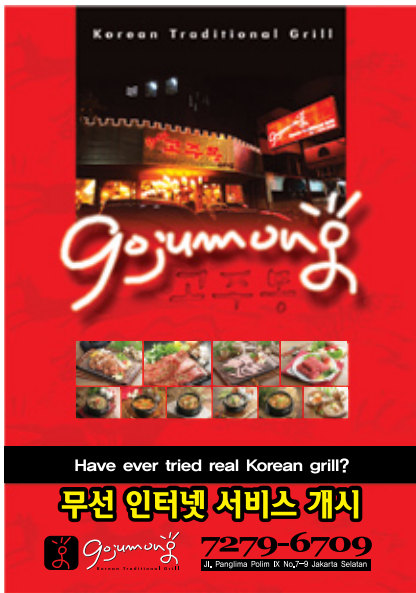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bo
고주부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개시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 9 Jakarta Selatan



마인드케어 하스크리니
심리검사 학습능력 향상 진로탐색

知彼知己 百戰不殆

知己 - '자신'을 아는 방법.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 있습니다. 인지 발달 수준, 학습 스타일, 직업 흥미, 학습 전략과 기술 등 자녀의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전문심리검사와 학습 케어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K-WISC / K-WPPSI
성격유형검사 MBTI / MMTC
직업흥미진로성숙도 & 직업적성검사

ALSA 청소년 학습전략검사
LST 학습기술진단검사

자기관리 학습법

021-546-4531 | 0813-8082-8282
리본까라와찌 아이브파투라 아파트 A동 로비 G호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 | | |
|-----------------------|----------|------|
| 아리랑(리본찌까랑) | 8990 | 1662 |
| 아리아 분식 | 722 | 0276 |
| 어울림 | 551 | 4853 |
| 오장동 오스시 | 739 | 6229 |
| 우리들 | 552 | 4047 |
| 울엄마 | 920 | 7244 |
| 원조식당 | 4585 | 1156 |
| 2002 레스토랑 | 5940 | 4189 |
| 장터 | 4585 | 4302 |
| 종가집 | 8990 | 6956 |
| 주막레스토랑 | 8990 | 0514 |
| 카사블랑카 | 8241 | 4949 |
| 코리안 하우스 | 844 | 4786 |
| 코리안 하우스(반동) | (022)203 | 1626 |
| 코리안하우스 히집 | 844 | 5877 |
| 타임(가라와찌) | 5577 | 6324 |
| 태극관 | 822 | 7011 |
| 토담 | 521 | 0230 |
| 토박 | 725 | 1135 |
| 팔레스 | 5296 | 2001 |
| 천지루 | 8990 | 1662 |
| 청기와 | 726 | 1924 |
| 청마루 | 452 | 5597 |
| 청해수산 | 739 | 7032 |
| 초가(가라와찌) | 552 | 6043 |
| 춘하추동 | 5940 | 2846 |
| 칠보산 | 4585 | 1161 |
| 하나레스토랑 | 4482 | 0081 |
| 하나마트 식당 | 8459 | 0064 |
| 하나비(리본찌까랑) | 8990 | 6230 |
| 하나정 | 5577 | 6457 |
| 하릴각 | 551 | 8511 |
| 한강(Wolter Monginsidi) | 7278 | 7802 |
| 한강(One Pacific Place) | 000 | 0000 |
| 한국관 | 720 | 7322 |
| 한민족 | 725 | 2688 |
| 한양가든 | 521 | 2522 |
| 한양가든(골라빠가딩) | 450 | 2071 |
| 한우리(찌부부르) | 8459 | 2871 |
| 할매손칼국수 | 4585 | 3398 |
| 할지박 | 739 | 6958 |
| 해물촌 | 451 | 3761 |
| 해운대 | 5577 | 8527 |
| 황소가든 | 8240 | 9670 |
| 황소가든 (0264)313 | 011 | |
| Ah Yat 레스토랑 | 5705 | 333 |
| Esse MM2100 | 8998 | 1564 |
| LA 갈비 | 7278 | 0550 |
| Lobster & King Crab | 515 | 5060 |

| | | |
|--------------|------|------|
| 신문 | | |
| 동아일보 | 720 | 6802 |
| 스피드뉴스 | 725 | 7447 |
| 조선일보 | 5290 | 7388 |
| 중앙일보 | 7590 | 8308 |
| 한국일보 | 769 | 1081 |
| 한나프레스 | 450 | 9107 |
| 일요신문 | 452 | 5655 |
| 타임 인도네시아 | 5028 | 4996 |
| JAKARTA POST | 530 | 0476 |
| 안경원 | | |
| 눈사랑안경원 | 9820 | 1493 |

| | | |
|------------------|-----------|------|
| 시티안경원 | 726 | 5009 |
| 여행사 | | |
| 굿데이 투어 | 4586 | 0598 |
| 그린 관광 | 798 | 3322 |
| Red Cap | 5797 | 3397 |
| Rodem Tour | 4586 | 6415 |
| 마타하리 여행사 | 521 | 2212 |
| 부미관광 | 7279 | 0011 |
| 비자여행 Malaysia | 603 9274 | 1780 |
| 솔로몬 투어 | 0813 1934 |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574 | 2660 |
| 스카이 투어 | 391 | 1381 |
| 153 TOUR | 5720 | 153 |
| 코리아 트래블 | 230 | 3116 |
| 코인 관광 | 720 | 7230 |
| 하나 관광 | 520 | 2450 |
| 호산여행사 | 691 | 3602 |
| HAPPY TOUR | 532 | 7970 |
| Inko Batam(바땀) | 0778 462 | 500 |
| 인터넷 | | |
| Net2Cyber | 576 | 3490 |
| S-Net | 7080 | 7886 |
| 넥스텔링크 | 525 | 3187 |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센다이 이주화물 | 719 | 0247 |
| 아네카 트랜스 | 520 | 4181 |
| 트랜스 우따마 | 829 | 6218 |
| CARGO PLAZA | 831 | 7779 |
| DHL | 7919 | 6677 |
| FIRSTA EXPRESS | 525 | 1628 |
| FNS | 8998 |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 8488 |
| HANINDO EXPRESS | 252 |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 3455 |
| QCN | 520 | 4189 |
| Wings Global | 4585 | 8053 |
| ZIMMOAH | 6531 | 1123 |
| 인테리어 | | |
| Living A&I | 7278 | 0704 |
| 로만 인테리어 | 720 | 4851 |
| 자동차 정비소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 4034 |
| 오토맥스 | | |
| 증권/보험 | | |
| 동서 KOLIBINDO | 526 | 1326 |
| 삼성 화재 | 520 | 5511 |
| 한진코린도 보험 | 797 | 5959 |
| E - TRADING | 574 | 1442 |
| LIG 손해보험 | 391 | 3101 |
| 컨설팅 | | |
| 글로벌컨설팅 | 7280 | 0524 |
| 누비라컨설팅(리본찌까랑) | 8990 | 0088 |
| 두왕컨설팅 | 520 | 7153 |
| 새천년컨설팅 | 5290 | 0040 |
| 우리컨설팅 | 7918 | 4239 |
| 컨설팅 21 | 799 | 6182 |

| | |
|--------------------|-----------|
| 한생컨설팅 | 5290 0670 |
| ● 컴퓨터, IT | |
| 대인정보시스템 | 230 5533 |
| 레드망고(PC방) | 4584 4186 |
| 리콤 컴퓨터 | 725 1606 |
| 멀티캡 컴퓨터 | 5579 0305 |
| 지텍컴퓨터 | 5696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0950 |
| 한비텔 | 8379 1144 |
| 한컴 | 5435 3007 |
| www.indoweb.org | 7082 0051 |
| Reading Revolution | 722 0833 |

| | |
|-------------|----------|
| ● 택시 | |
| SILVER BIRD | 798 1234 |
| BLUE BIRD | 794 1234 |
| CITRA | 781 7771 |

| | |
|--------------|---------------|
| ● 하숙집 | |
| 쉴터 하숙 | 726 8775 |
| 일박이일 하숙집 | 424 0953 |
| 교민 하숙 | 0816 163 5558 |

| | |
|--------------------|---------------|
| ● 학원/교육업 | |
| 대교 인도네시아 | 8370 7245 |
| 다니엘 아카데미 | 722 0686 |
| 리앤리 | 725 5008 |
|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 546 4531 |
| 뮤직 아카데미 | 7280 1663 |
| 박학천 논술 | 3342 7540 |
| 뽀뽀 인다 아카데미 | 7590 5773 |
|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벨리카와외지) | 546 4531 |
| 예원 | 720 8783 |
| 인재서당 | 739 7153 |
| 송로 학원 | 7279 1020 |
| 토마토 미술 | 720 5194 |
|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 725 5757 |
| 하이스트 학원 | 720 2022 |
| 해동검도 | 522 7204 |
| 해보다 외국어학원 | 0888 843 0415 |

| | |
|----------------------|---------------|
| ● 항공 | |
| 대한 항공 (시내) | 521 2180 |
| (공항) | 550 23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싱가폴 항공 | 570 4411 |

| | |
|-------------|----------|
| ● 호텔 | |
| 그랜드 멜리아 | 526 8080 |
| 만다린 | 314 1407 |
| 몰리아 | 574 7777 |
| 상그릴라 | 570 7440 |
| 싸이드 자야 | 570 4444 |
| 하얏트 | 390 1234 |
| 크라온 플라자 | 526 8833 |
| 솔탄 | 573 8011 |

| | |
|-------------|----------------|
| ● 환전 | |
| 그린 환전소 | 0815 1423 0114 |
| 플라빠가징 | 453 1166 |

| | |
|-----------|-----------|
| 사강 머니체인저 | 5290 0233 |
| 위나 머니체인저 | 7278 0929 |
| 뚜나스 신암 | 797 6105 |
| 참피온 머니체인저 | 4585 4779 |
| 환전 | 712 8556 |

| | |
|-------------|--------------|
| ● 기타 | |
| 꽃과 좋은날 | 0811 941 173 |
| 스폰지 | 7095 4771 |
| 아시아 진주 | 7278 8327 |
| 닥터큐(피부미용) | 5696 7090 |

발리 (지역번호 0361)

| | |
|----------------------|----------|
| ● 여행사 | |
| PESONA TAMAN KENCANA | 744 1525 |
| PD TOUR | 763 845 |
| PENJOR TOUR | 727 800 |
| P.B.B | 288 999 |
| APA TOUR | 241 341 |
| TNB | 773 5801 |
| KORUS | 744 7200 |
| MARIN TOUR | 224 010 |
| VIP TOUR | 762 090 |
| SUDINA BALI | 744 2121 |
| MATAHARI KORIN | 757 474 |
| CAKRAWALA TOUR | 727 242 |
| B.J.C TOUR | 284 365 |
| M TOUR | 725 800 |
| SATYA TOUR | 283 305 |
| RED CAP | 754 4418 |
| 스피릿투어 | 234 825 |
| Varia Tour | 860 4977 |
| Korea Travel | 756 899 |
| 대한항공지점 | 244 988 |

| | |
|------------------------|---------|
| ● 식당 | |
| A One Seoul Garden | 768 323 |
| hanil rest | 727 250 |
| Seoul Garden (0362) | 292 20 |
| 청기와 | 287 503 |
| 꼬끼레스토랑 | 287 503 |
| Ajengan Korean FOOD | 263 793 |
| Grill House Restaurant | 752 755 |
| BUGA RESTAURANT | 286 909 |

| | |
|-----------------------|----------|
| ● 서비스업 | |
| - 마사지 | |
| 아이시스마사지 | 287 503 |
| INKO MASSAGE | 789 2000 |
| MASSO MASSAGE | 725 475 |
| - 빌라, 호텔 | |
| 드림랜드빌라 | 708 199 |
| 라벤더 호텔 앤 스파 | 752 961 |
| BEVERLY HILLS | 789 2000 |
| OCEAN BLUE BALI villa | 776 700 |
| Arirang Hotel (0363) | 417 95 |

| | |
|------------------|---------|
| - 기타 서비스업 | |
| INT | 720 999 |
| HAN STAR | 729 099 |

| | |
|----------------------------|----------|
| BALI ZIGI.COM | 745 4229 |
| 시나르무띠아라(진주) | 462 061 |
| 선주얼리진주가게 | 761 539 |
| 발리데와따 | 285 501 |
| CLEAN/GREEN | 289 070 |
| 환타지가라오케 | 282 828 |
| 뜨게아궁 | 298 643 |
| 공항(폴로) | 759 368 |
| BALI CHIPPENDALE FURNITURE | 812 570 |
| 익투스 | 815 310 |
| Bali Cable Com | 705 266 |
| B,T,I | 284 362 |
| 머르타나디(가구점) | |
| DEDO RAYA UTAMA | 720 452 |
| G.B.I 발론기구 | 704 333 |
| LAPAMA 레프팅 | 288 507 |



돼지독감(Swine Influenza, SI) 주의

1. 동포 주의사항

- 미국, 멕시코에서 최근 발병한 돼지독감(SI) 관련 한국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돼지독감 대국민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둘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셋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사관(Tel 520-1915, 야간당직폰 0811-852-446)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①미 국 : 귀국 7일 이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오주, 캔자스주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 ②멕시코 : 귀국 7일 이내 멕시코(전지역)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 넷째,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 4.26(일) 한국 외교통상부는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및 산루이스포토시주 등 3개 지역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밖의 멕시코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동 지역여행을 계획하신 동포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인니 돼지독감 동향 및 정부 대응현황
- 4.27(월) 현재 시타 파달라 수빠리 보건부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내 돼지독감환자가 발병되지는 않았으며, 사육중인 돼지의 살처분 여부도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돼지독감 잠복기가 3-5일이므로 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4.27(월)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자카르타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 대해 체온검사를 실시하여 체온 38도 이상 입국자는 솔리안따 사로소 병원(자카르타) 등에 격리 및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조치를 거부할 경우 국외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4.27(월)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는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 식품수입을 무기한 전면금지하였으며, 인도네시아내 양돈농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2009년도 부인회 취미활동반 안내

부인회에서 2009년도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된 반들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알찬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운영교실 | 일시 | 강사 | 기간 | 장소 | 연락처 |
|-------|-------------|-------|-----------|---------|----------------|
| 플룻 | 월요일 | 유은영 | 현재 활동중 | 부인회 사무실 | 769-2166 |
| | 10:00-11:30 | | | | 0812-924-1860 |
| 영어 | 화요일 | 차지환 | 3월 17일 | 부인회 사무실 | 720-9985 |
| | 10:00-11:30 | | | | 0812-1872-9003 |
| 꽃꽂이 | 수요일 | 이승희 | 3월 18일 | 부인회 사무실 | 5292-1067 |
| | 10:00-12:00 | | | | 0813-8899-9175 |
| 서예 | 목요일 | 손인식 | 현재 활동중 | 부인회 사무실 | 739-7153 |
| | 09:00-12:00 | | | | 0815-936-9114 |
| 컴퓨터 | 목요일 | 김미혜 | 3월 19일 | 레드토마토 | 426-2918 |
| | 10:00-12:00 | | | 세노빠띠점 | 0815-9590-436 |
| 유화반 | 금요일 | 김수영 | 3월 13일 | 부인회 사무실 | 750-3006 |
| | 10:00-12:30 | | | | 0858-8543-6348 |
| 스포츠댄스 | 토요일 | Melly | 3월 14일 | 부인회 사무실 | 0816-160-5911 |
| | 15:00-17:00 | | | | |
| | 일요일 | Melly | 3월 15일 | 부인회 사무실 | 0817-155-864 |
| | 16:00-18:00 | | | | |

부인회 연락처(총무) : 박성영 0816-160-5911, 류경희 0817-155-864, 이효순 0817-665-0959

재 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회장 홍미숙

한국대사관 관세관 업무 안내

한국대사관에 이득수 관세관이 부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주재국 세관당국, 무역부, ASEAN 사무국 등과 Contact Point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진출 우리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통관애로사항지원, 관세관련상담, 민원해결 지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등 관세제도 상담
- 수출입 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마찰 해소지원
- 특히 조정관세부와 관련 인니 세관당국 간 조정역할 수행

○ 한-아세안 FTA 활용제도 지원

- 원산지 규정, 양허세율, 특혜통관제도 등 상담
-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관련 애로해소 지원 및 상담
- FTA 특혜통관 시 애로·마찰해소 지원 및 FTA 비즈니스 모델 상담

○ 기타 관세 및 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향후 한인회, KOTRA, 한인 상공회의소, 통관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 (「현지 통관협약체」 구축, 설명회 개최 등)

□ 연락처

TEL : 62-21-520-1915
 HP : 0811-993-1325
 FAX : 62-21-525-4159
 E-mail : leeds@customs.go.kr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제외)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대한항공 하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9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
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 구간 | 편명 | 출발 | 도착 | 요일 |
|-----------|-------|-------|---------|-----|
| 자카르타 > 인천 | KE628 | 22:05 | 07:10+1 | 매일 |
| 인천 > 자카르타 | KE627 | 15:45 | 20:45 | 매일 |
| 덴파사르 > 인천 | KE630 | 03:10 | 11:15 | 일/월 |
| | | 01:20 | 09:25 | 화~토 |
| 인천 > 덴파사르 | KE629 | 18:05 | 00:01+1 | 월~금 |
| | | 19:50 | 01:50+1 | 토/일 |

2. 기간: 2009. 3. 29~

또한 2008년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
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
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인간과 환경의 **행복한 조화!**

SKYRON

SKYPET

SK chemicals

SK KERIS

SK Fiber Indonesia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